



전략연구 2017-28

#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sdart@cni.re.kr



# 연구 요약

## 1. 서론

최근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하여 어업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국가 및 충남의 수산업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산업인 수산업에 2차(가공), 3차(관광·서비스)를 접목한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어촌산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 1월에 수산산업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어촌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 어촌산업의 개념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및 충남의 어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및 체계적·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 및 현황

### 1) 어촌산업의 정의 및 키워드

어촌산업은 6차산업화의 기본적 정의를 따르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어촌특화의 개념을 고려하여 “어촌의 공동체가 지역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어촌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및 충남도의 수산업·어촌 관련 계획에서 ③ 어항 및 도서의 복합공간화, ④ 지역 수산가공식품 육성, ⑤ 지역 수산식품 소비촉진, ⑥ 수산식품 시장경쟁력 강화, ⑦ 귀어귀촌 활성화, ⑧ 어촌마을 주민 역량강화, ⑨ 도어교류 활성화이다. 어촌산업 관련 계획의 키워드를 조합하면 공간, 산업, 사람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를 융·복합한 것이 어촌산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간은 해양(어촌)관광·문화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어항 및 도서의 복합공간화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은 지역 수산가공식품 개발, 지역 수산식품 소비촉진, 수산식품 시장경쟁력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귀어귀촌 활성화, 어촌주민 역량 강화, 도어교류 활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다.

## 2)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10개소가 설립·운영 중이고, 보령시(무창포, 장고도, 삼시도), 서산시(중리, 웅도), 서천군(월하성), 태안군(대야도, 만대, 용신, 병술만)에 위치해 있다. 충남은 전남(30개소), 경남(22개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으며 경기(10개소)와 같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4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이 중 충남은 2013년 태안 중장5리(대야도)마을, 2014년 서산 중왕마을, 2015년 서산 웅도마을, 2016년 당진 교로2리, 서천 송림마을이 선정되었다. 한편, 2017년부터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도하여 태안 병술만과 만수동, 보령 효자도, 홍성 죽도 등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1차(2014~2015년), 2차(2016~2018년)가 실시되었다. 대상마을은 1차, 2차에 걸쳐 총 10개소이고, 충남에서는 1차 시범사업으로 태안 대야도마을(중장5리)과 2차 시범사업으로 서산 중리마을(중왕리)이 선정되었다. 태안 대야도마을은 우럭 가공시설 건립 및 레스토랑을 설립·운영하고, 서산 중리마을을 감태 가공시설 건립 및 감태 가공식품 개발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 3) 충남 어촌산업의 진단

전국 및 충남의 어촌현황을 바탕으로 충남 어촌산업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해양(어촌)관광 분야 강점에 있으며 전망도 밝다. ② 해양(어촌)문화 발굴·육성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③ 어항 및 도서 복합공간화를 통한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④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⑤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⑥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⑦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⑧ 어촌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⑨ 도어교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 3. 지식경영 관점의 어촌산업 사례 분석

### 1) 서산 중리마을

중리마을의 대표사업 키워드는 크게 어촌체험마을, 갯마을 뿔낙지 축제, 조미감태 생산 등이다. 이들 대표사업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암묵지로만 존재하는 특성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등을 추진하기 이전의 마을 상황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소멸 위기감,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라 기존에 생산되던 굴, 바지락, 낙지, 감태, 조피볼락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중리마을의 존립이 위협받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때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한 리더가 출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리더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역량교육 등을 통한 어촌계원의 인식 개선 및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거기에 어촌계원이 아닌 일반 주민의 참여함으로써 추진력이 배가 되었다.

②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단계에서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이 추진되었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2013년에 지정되었고, 2014년에 개장하였다. 바지락 캐기, 좌대낚시 등의 어촌체험과 감자캐기 등의 농어촌 복합체험을 통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해품”, “중왕리”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하여 상품가치를 높였으며, 조미감태, 감태비누 등을 개발·판매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조미감태는 아직까지 태안에서 위탁가공하고 있으나, 2015년 출시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 감태비누, 감태한과 등 감태를 원료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갯마을 뿔낙지 축제를 개최하여 맨손 낙지잡기, 먹물 팩 해보기, 낙지 먹물 그리기, 낙지요리 무료 시식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시민에게 중리마을의 매력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어촌특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③ 형식지로만 존재하는 연결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성과가 홍보되어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투자받았다. 어촌체험마을의 성공과 함께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어업인의 날에는 국무총리 표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으로 충청남도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마을이 되었다. 또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회계보고와 투명한 결산관리를 통하여 주민 모두 납득 가능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마을 전체가 긍정적인 소득향상을 이루었다. 또 체험마을과 축제 운영을 통하여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도 매출이 각 30%, 10%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계절별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④ 형식치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구상이 전개되었다. 먼저 귀어귀촌 장려 및 어촌장벽 완화를 통하여 귀어귀촌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마을에 활력을 되찾을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OEM을 통하여 생산되는 조미감태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마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지락을 활용하여 이유식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갯마을 뿔낙지 축제를 규모화시켜 지역브랜드 축제로 발전시키고, 어가레스토랑, 체류형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에게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촌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어촌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중리만의 특화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 태안 대야도마을

대야도마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전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마을의 대표 사업 키워드는 어촌체험마을, 마을학교, 어촌 6차산업화, 주민복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사업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암묵지로서만 존재하는 특성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김 양식지로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나, AB지구 간척사업 이후 김양식장이 중단되면서 주민소득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마을어장 관리 미흡과 어촌계 비활성화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또 마을 공동자금이 전무하고, 마을대표의 리더쉽이 부재하였으며, 주민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어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마을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마을발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②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단계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마을에서 인수하여 마을학교를 개교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을학교 운영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교육 참여로 문화어울림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 전통낚시배 복원, 김양식의 전래지 등의 역사를 복원하고, 천상병시인 고택 등 문화유산을 발굴하면서 마을주민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마을의 변화에는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귀촌인에게도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마을통합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어촌산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야도마을의 매력을 타 지역 주민들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였다.

③ 형식지로서만 존재하는 연결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성공에 따라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상생을 위한 효율적인 공동체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어촌마을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삼성전기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도어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녀회 식당 운영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행복마을콘테스트,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등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에 선정되어 마을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기도 하였다. 또 마을 내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마을 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생활·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④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성공과 마을공동체 결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인 반건조 우럭 가공판매, 어가 레스토랑 운영 등 신규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반건조 우럭의 판매망 확보, 어가 레스토랑의 활성화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체험마을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대야도마을은 자체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다 독창적이고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주민 문화·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 마을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기금을 노인공정 프로그램,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마을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데 사용하여 주민 모두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촌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특화어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4. 충남 어촌산업의 발전방안

### 1) 지식경영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중리마을과 대야도 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성화 단계는 주민들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고,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체감해야 한다. ② 표출화 단계에서 주민들이 체감한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마을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연결화 단계에서는 표출화를 통하여 실행된 어촌산업이 보다 고도화되고, 대내·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④ 내면화 단계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어촌산업 아이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촌산업의 모델의 구성요소(공간, 산업, 사람)와 지식경영 이론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특성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접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은 지식변환 모드가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변환 모드의 각 단계는 어촌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어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갖는 현안문제가 암묵지가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식변환 모드가 실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문제는 특성화 단계에 나타난다.

② “산업”은 어촌공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및 연결화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현실적인 산업화 모델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어촌산업의 기반이 마련된다. 또 내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촌산업의 내실화가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형성된다.

③ “사람”은 지식변환 모드의 전 과정의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특성화 단계에서는 어촌의 현안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출화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연결화 단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내면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신사업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충남도가 어촌산업 추진에 있어 설정해야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촌산업의 비전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자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 충남 어촌을 육성해야 한다. 어촌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주체는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기본 명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 어촌을 지향해야 한다. 또 어촌산업의 정책적 목표를 6차산업화의 정의와 부합하게 어촌의 가치를 제고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사업만을 지향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의 인구·인력,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융·복합 산업으로 어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어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어촌산업의 메카니즘이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촌의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어촌, 주민이 행복한 어촌이 실현될 수 있다.

### 3) 추진 체계

어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을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촌산업은 근본적으로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 마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주민이 어촌산업을 통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고 사업화하면서 어촌산업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간다. 또 그 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받아 정부-지자체-어촌마을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촌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좀 더 사업을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어촌산업의 로드맵은 주민을 중심으로 신규, 도약, 계획, 실행, 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신규단계는 주민들이 어촌의 고령화·과소화, 수산자원 감소, 해양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마을발전 및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② 도약단계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하여 어촌산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주민교육 및 리더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단계이다. ③ 계획단계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어촌산업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④ 실행단계는 앞서 수립했던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촌산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⑤ 관리단계는 앞서 실행했던 어촌산업의 부작용 및 문제점이 발현되고, 이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어촌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식경영의 4가지 지식변화 모드에 따라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정책방향으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에게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충남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등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부록에서 제시하지만, 보다 면밀한 세부사업 도출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이론 및 현황 .....	6
1. 어촌산업의 정의 및 키워드 .....	6
2.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	12
3. 충남 어촌산업의 진단 및 SWOT .....	31
제3장 지식경영 관점의 어촌산업 사례분석 .....	34
1. 지식경영 이론 .....	34
2. 지식경영을 활용한 사례분석 .....	36
3. 지식경영 관점의 사례비교 .....	46
제4장 충남 어촌산업의 발전방안 .....	48
1. 지식경영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	48
2.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51
3. 추진체계 및 로드맵 .....	57
제5장 결론 .....	61
참고문헌 .....	63
부록 충남 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안) .....	66
1. 기본방향 .....	66
2. 비전 및 목표 .....	67
3. 추진전략 .....	69
4. 세부사업 .....	70

## 표 목 차

[표 1-1] 어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
[표 2-1] 어촌(산업)관련 계획 검토 .....	9
[표 2-2] 어촌(산업)관련 Keyword 도출 .....	11
[표 2-3] 시도별 갯벌면적 변화 (1987~2013) .....	13
[표 2-4] 충남 시군별 해안선 및 도서 .....	13
[표 2-5] 충남 이용관광객 상위 5위 해수욕장 (2016) .....	14
[표 2-6] 충청남도 항만지정 현황 .....	14
[표 2-7] 충청남도 마리나(예정) 현황 .....	15
[표 2-8] 어업경영주 평균연령 .....	16
[표 2-9] 충남의 어가 및 어업인구 (2016) .....	22
[표 2-10] 충남의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2016) .....	23
[표 2-11] 충남 수협별 위판장 현황 (2016) .....	23
[표 2-12] 충남 수산업경영인 현황 (2016) .....	23
[표 2-13] 충남 어업권 현황 (2016) .....	24
[표 2-14] 충남의 어선 보유 현황 (2016) .....	24
[표 2-15] 충남 낚시이용객 및 수입 현황 (2016) .....	25
[표 2-16] 전국 및 충남 어항 현황 (2016) .....	25
[표 2-17] 충남 수산물 생산량 (2016) .....	26
[표 2-18] 충남 수산물 생산금액 (2016) .....	26
[표 2-19] 충남 내수면 어업권 현황 (2016) .....	27
[표 2-20]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현황 .....	28
[표 2-2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충남 현황 .....	28
[표 2-22]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황 (1) .....	29
[표 2-23]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황 (2) .....	30
[표 2-24] 충남 어촌산업의 SWOT 분석 .....	33
[표 3-1] 지식경영 관점의 중리와 대야도 비교 .....	47
[표 4-1] 지식경영 관점의 어촌산업 발전단계 .....	49
[표 4-2]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	52
[표 4-3]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전략 .....	56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체계 .....	5
[그림 2-1] 어촌산업의 모델 .....	12
[그림 2-2] 우리나라의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수 .....	16
[그림 2-3]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화율 .....	17
[그림 2-4]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수 .....	18
[그림 2-5] 농가 및 어가 소득 비교 .....	19
[그림 2-6] 어업경영비 및 어가부채 현황 .....	19
[그림 2-7] 우리나라 어항의 현황 .....	20
[그림 2-8] 시도별 귀어가구 현황 .....	21
[그림 2-9] 우리나라 귀어·귀촌 현황 (2016) .....	21
[그림 2-10] 지역별 어촌체험마을 현황 (2016) .....	27
[그림 3-1]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 .....	35
[그림 3-2] 중리마을 관련 사진 .....	37
[그림 3-3] 중리마을의 지식변환 모드 .....	39
[그림 3-4] 대야도마을 관련 사진 .....	41
[그림 3-5] 대야도마을의 지식변환 모드 .....	44
[그림 4-1] 어촌산업 모델과 지역변환모드의 접목 .....	51
[그림 4-2] 충남 어촌산업의 비전도 .....	57
[그림 4-3] 충남 어촌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58
[그림 4-4]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 로드맵 .....	60
[그림 부록-1] 충청남도 어촌산업의 비전 및 세부사업 .....	68



# 제1장 서론

## 1.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하여 어업생산성이 하락하고, 어촌인구가 급격한 감소하여 국가 및 충남의 수산업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산업인 수산업에 2차(가공), 3차(관광·서비스)를 접목한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어촌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17년 1월에 수산산업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sup>1)</sup>

그리고 2013년에 제정되고 최근 개정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는 기존 마을 정비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특화의 개념을 6차산업화까지 확대하여 “어촌특화발전”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정립하여 융·복합된 어촌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박상우 외, 2013). 기존의 어촌이라는 “공간”에 산업적 “특화”를 더하여 보다 창의적인 공간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기존의 마을경관, 정주환경 등 어촌개발에 어촌체험, 수산물 가공, 휴양·레저·관광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공간·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김종화, 2015). 또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 업무조정으로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연안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는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지역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어촌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 어촌산업의 개념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충남의 어촌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및 체계적·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어촌특화지원센터 : 전남, 경남 (2016년 설립), 충남, 강원 (2017년 설립),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부산(2018년 설립)

2) 충남도내 해수부 관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 태안군 전체,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해당

## 2. 선행연구 검토

어촌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경제·사회, 지역개발계획, 어촌산업화, 어촌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1>. 어촌이라는 경제·사회적 관점의 속성과 공간적인 개념의 지역개발계획, 그리고 최근의 6차산업화를 필두로 대두되는 융·복합산업화, 어촌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할 어촌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어촌 관광(Blue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어촌계라는 독특한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어촌의 경제·사회적 구조와 속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변화에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촌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촌에 투입되는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관련정책을 검토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의 관점에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간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차별적 어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을 유형화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6차산업화와 접목을 통한 고도산업화를 제시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어촌 경쟁력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화를 강조한 연구였다. 또 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을 논하는 연구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어촌의 부존자원과 이를 활용한 어촌산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어촌산업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 특히, 어촌이 주로 연안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같은 광역·지역단위에서 어촌산업에 대한 접근방법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표 1-1] 어촌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주요 내용
경제·사회 관점	김상겸 외 (1977)	전통적 어촌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행태를 특징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경제의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파악
	이근변 (1990)	한국과 일본 어촌의 사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촌사회의 계층분석의 양상과 사회이동(특히 구조적이동)의 규명을 통해 어촌사회의 변화 모습을 비교 분석
	정근식 외(1998)	어촌사회의 자원이 어장에서 토지로 변할 때 어촌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어촌공동체가 규정되어 있거나 관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제임을 입증
	옥영수 (2008)	1986년과 2006년의 전국 어촌계의 호당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어촌계의 소득 불평등도의 전개방향을 분석하고, 2006년 기준 상위 및 하위 어촌계의 변화 비교
지역 개발 계획	김정태 (2012)	기존에 어촌마을에서 수행된 지역개발사업에서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 간 참여 실태 및 사업이 미치는 효과 측정. 어촌지역에서 수행된 지역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어촌계의 중심적 역할 수행 확인
	김준 (2008)	기존의 어촌개발정책과 섬 및 어촌의 발전정책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어촌마을가꾸기의 방향 모색. 이를 위하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 섬 관광, 문화역사마을 등 사례분석
	안영길 외(2008)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계획적인 접근방법 제시. 계획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을 통해 어촌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접근과 소프트웨어적인 참여 방법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접근 제안
어촌 산업 화	최성애 외(2009)	어촌산업화가 어촌 및 어가의 소득증대의 좋은 대안으로 간주하여 어촌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등 발전에서 벗어나 차별적 접근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어촌과 취약어촌으로 구분하는 등 어촌의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유형별 발전 전략 제시
	임관혁 외(2014)	어촌지역 6차산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강릉시의 6차산업화 현황 및 추진체계 분석 및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차산업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임관혁 외(2014)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도입과 그 가능성을 가능해보기 위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한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어촌 관광	송경언 (2003)	원격지 어촌을 대상으로 관광지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관광어촌의 유형에 대하여 분석.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이에 따른 관광기능의 분포를 분석하고, 사례별로 관광어촌 유형화 검토
	김수관 외 (2008)	전북 고군산지역의 방문객의 여행형태와 성향 및 의식을 중심으로 어촌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 검토
	황기형 외(2010)	국내 어촌관광의 실태를 분석하고 어촌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
	정희선 외(2014)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로 진행된 어촌관광사업 중 소프트웨어 사업방식에 더 치중한 공공미술사업과 하드웨어적인 토건사업의 비중이 높은 어촌체험마을사업 중 어떠한 사업방식이 지역주민의 지지도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는지 분석
	임관혁 (2015)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경북 영덕군 치유마을을 통하여 어촌마을의 내발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요요소를 분석하여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제시
	김종화 외(2015)	서비스 마케팅의 관점에서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문객 유형화를 실시하여 방문객 특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마케팅 전략 제시

### 3.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충남의 어촌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어촌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인터뷰조사, 사례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어촌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어촌산업의 정의 및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론적 배경 및 연구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인터뷰 및 사례 조사는 충남의 대표적인 어촌 6차 산업화 마을인 서산 중리마을과 태안 대야도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은 경영학의 관점에서 지식경영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4단계 지식변환 모드에 따라 해당마을의 어촌산업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연안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서산 중리마을과 태안 대야도 마을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이유는 충남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충남의 연안 어촌마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내용적 범위는 어촌산업을 어촌 6차산업화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어촌산업을 공간, 산업, 사람이 결합된 형태로 정의하여 그에 맞는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지역에서 어촌산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체계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 뒤,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촌산업의 정의를 검토하고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서산 중리마을과 태안 대야도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이론적 틀에서 어촌산업의 발전방안,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다.



<b>연구의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및 목적</li> <li>▶ 선행연구 검토</li> <li>▶ 방법 및 범위</li> </ul>
↓	
<b>문헌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산업의 정의</li> <li>▶ 어촌산업의 키워드 도출</li> <li>▶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li> </ul>
↓	
<b>사례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경영 관점에서 어촌산업 사례 분석</li> <li>▶ 4단계 지식변환 모드에 따른 사례 분석</li> <li>▶ 지식경영 관점에 따른 사례비교</li> </ul>
↓	
<b>정책방안 제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영 관점에서의 발전방안</li> <li>▶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li> <li>▶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체계 및 로드맵</li> </ul>
↓	
<b>결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 및 시사점 제시</li> </ul>

[그림 1-1] 연구체계

## 제2장 이론 및 현황

### 1. 어촌산업의 정의 및 키워드

#### 1) 어촌산업의 정의

어촌산업의 정의는 어촌특화 또는 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어촌은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1차 산업인 수산업이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촌산업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면서 “어촌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촌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농촌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령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6차산업화”라는 용어보다 “어촌특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두 법률에서 정의한 농촌융복합산업과 어촌특화는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1차(농어업), 2차(가공·제조업), 3차(유통, 관광 등 서비스)를 융·복합하여 농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양 법률에서 핵심이 되는 6차산업화를 제창한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奈良臣)교수는 “농어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2차 산업(가공 및 식품 제조), 3차 산업(도소매, 정보 서비스,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하면서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고, 고령자와

여성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小林, 2012). 즉, 산업적 융·복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령화 및 여성화 문제, 일자리 창출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촌산업은 6차산업화의 기본적 정의를 따르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어촌특화의 개념을 고려하여 “어촌의 공동체가 지역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2) 어촌산업의 키워드 도출

어촌(산업)정책은 국가의 관련법령에 근거한 기본계획 또는 충남도가 수립한 지역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및 충남도의 계획은 수산업 큰 틀의 일부로서 어촌(산업)을 취급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 주민복지 및 삶의질 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표 2-1>.

먼저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촌의 권역단위 개발과 거점어촌을 육성하고, 어촌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지역개발사업에서 권역단위 개발과 PC 보급 등의 정보화사업이 주로 추진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촌(산업)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양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 육성 및 콘텐츠 개발이 포함되어 어촌의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로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국가 어촌정책의 방향을 설계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촌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의 다변화를 지향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 부존자원 발굴, 정주여건 개선, 어촌인력 양성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촌관광 및 어촌산업 활성화, 도시와 어촌의 상생강화, 어촌경영 안정화, 어촌자원의 융복합화 등 도어교류 확대 및 어촌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어촌 6차산업화, 어촌체험마을의 세계화,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마을 리모델링 등 어촌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정주기반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어촌 산업 활성화,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어촌문화 육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어촌활력 제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가계획에서는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복지증진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어촌관광 육성, 어촌경영 지원, 어촌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수산업·어촌분야에도 6차산업화 개념이 접목되면서 어촌의 1차×2차×3차 산업이 융·복합된 어촌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 어촌(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과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어촌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립된 수산업·어촌관련 정책에서는 4대 명품수산물 육성, 섬마을 중심 특화단지 조성, 수산물 로컬푸드 확대, 귀어귀촌 강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수협 지역혁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중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 어촌(산업)관련 계획 검토

구분	계획 명	주요 내용
국가 계획	제1차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촌의 권역단위 개발 및 지역특화 모델 구축</li> <li>어촌생활환경, 편의·복지 확충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li> <li>어촌정보화사업, 어촌문화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관광모델 개발</li> </ul>
	제2차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li> <li>해양역사 및 문화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로 가치 확대</li> <li>국립해양박물관, 해양생물자원관 설립 및 해양문화축제 활성화</li> </ul>
	제1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항 중심으로 수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 개발</li> <li>어촌개발, 인력양성 등 어촌의 부존자원으로 활용한 소득 창출</li> <li>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지원사업 추진</li> </ul>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관광 및 어촌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로 부유한 어촌 조성</li> <li>도시어촌 상생 강화, 어촌 복지·환경 개선, 어촌경영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li> <li>지역특화 개발, 어항 구조조정, 어항 운영·관리 선진화를 통한 지역 경제 중심으로 어항 육성</li> <li>안전성 제고, 위생관리 강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개발로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 조성</li> </ul>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차산업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센터 지정·운영,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융·복합 어촌 6차산업화 확대</li> <li>명품 어촌어항 조성, 어촌체험마을 세계화, 새로운 어촌종합개발 추진으로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li> <li>어촌마을 리모델링, 낙조지역 복지 사각지대 지원으로 어촌어업인의 정주기반 강화</li> </ul>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 6차산업화, 그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어촌체험마을 등을 통한 어촌산업화 활성화 추진</li> <li>명품 어촌어항 조성, 청정어항 도입 및 확대, 어촌어항 안전기반 강화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li> <li>어업유산 보전·계승, 어촌문화 아카이브 구축, 전통 어업문화 계승 등으로 어촌문화 육성</li> <li>어업인 복지지원체계 확충, 어업인 안정보장, 낙도 어업인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li> </ul>
충남 계획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명품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계열화를 통한 브랜드화</li> <li>양식업 및 해삼특화업 등 섬마을 중심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li> <li>어촌특화사업, 로컬푸드를 통한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li> </ul>
	한중 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으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li> <li>어촌 6차산업화, 도어교류, 귀어·귀촌 등으로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li> <li>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li> </ul>
	충청남도 해양수산업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 6차산업, 어촌문화 육성으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육성</li> <li>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li> <li>수산물 로컬푸드 개발·보급 및 지역브랜드 강화</li> </ul>
	충청남도 어업어촌 증장기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어·귀촌, 주민역량강화, 해양수산업력 교육 등 지역역량 강화</li> <li>FPC 건립, HACCP 설비 등 수산물 가공·유통·안전 시스템 구축</li> </ul>

국가 및 충남도의 수산업·어촌 관련 계획에서 어촌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면 다음 <표 2-2>과 같다.<sup>3)</sup> 첫째, 해양(어촌) 관광·문화 육성이다. 바다라는 천혜자원과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양·치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바다 및 어촌의 가치를 제고한다. 천혜의 해양환경을 활용한 해양(어촌)관광 육성으로 블루투어리즘을 실현하고, 예부터 내려 온 전통 해양(어촌)문화의 계승, 해양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하여 해양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촌 6차산업화 육성이다. 1차(어업), 2차(가공), 3차(관광·서비스·유통)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하여 어업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농업에서는 개별 경영체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수산업에서는 어촌계라는 경제·생활 공동체에 방점을 두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어촌공간의 6차산업화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셋째, 어항 및 도서의 복합공간화이다. 어항과 도서라는 특수한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치유·휴양, 레저·관광, 문화·복지 등의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민에게 어촌의 심미적 매력과 이용편의,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하고, 이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궁극적인 어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지역 수산가공식품 육성이다. 지역특화 수산물 생산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풍습 및 식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수산가공식품, 전통향토요리 개발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킨다. 충남은 바지락, 멸치, 김, 해삼, 전복, 우럭 등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어업기지로써 지역 수산가공식품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지역 수산식품 소비촉진이다. 수산식품 로컬푸드 확산 및 지역브랜드 구축, HACCP, ISO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지역 수산물 공급·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약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 내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수산식품 시장경쟁력 강화이다. 지역 FPC 설립 및 위판장 현대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보, 수출 클러스터 조성,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식품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으로

3) 관련계획은 제1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제1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제2차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정계획),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전략, 한중 FTA 농림수산물 분야 대응방안 연구,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임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내수시장 대응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귀어귀촌 활성화이다.** 어촌 고령화 및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귀어귀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귀어인에게 어업(양식)기술을 전수하고, 어촌 6차산업화 인력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마을 빈집을 알선·수리하여 주거정착을 지원하고, 기존 마을주민과 융화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덟째, 어촌마을 주민 역량강화이다.** 어촌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주민의 인식 개선, 갈등 해소 등을 통하여 어촌개발의 원동력을 확보한다. 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하여 어촌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것이 마을내 공감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홉째, 도어교류 활성화이다.** 어촌주민과 도시민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어촌의 가치 확산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 도시민이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호혜적인 관계형성을 유도한다.

[표 2-2] 어촌(산업)관련 Keyword 도출

계획 명	주요 내용
해양(어촌) 관광·문화 육성	바다라는 천혜자원과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바다 및 어촌의 가치 제고
어촌 6차산업화 육성	1차(어업), 2차(가공), 3차(관광·서비스·유통)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어업외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항 및 도서 복합공간화	어항과 도서는 특수한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치유·휴양, 레저·관광, 문화·복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지역 수산가공식품 육성	4대 명품 수산물 육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풍습·문화 등의 특성이 반영된 수산가공식품, 전통향토요리 개발 및 공급·소비 촉진
지역 수산식품 소비촉진	수산식품 로컬푸드 확산 및 지역브랜드 구축, HACCP ISO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한 지역 수산물 공급·소비 체계 구축
수산식품 시장경쟁력 강화	지역 FPC 설립 및 위판장 현대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보, 수출 클러스터 조성,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수산물 수출 확대
귀어귀촌 활성화	어촌 고령화 및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귀어귀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어촌주민 역량강화	어촌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주민의 인식 개선, 갈등 해소 등을 통하여 어촌개발의 원동력 확보
도어교류 활성화	어촌주민과 도시민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어촌의 가치 확산 및 지역 활력 증진

이상의 어촌산업 관련 계획의 키워드를 분류하고 조합하여 다음 <그림 2-1>과 같은 어촌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앞의 각 키워드를 구분하여 공간, 산업, 사람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를 융·복합한 것이 어촌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간은 해양(어촌)관광·문화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육성, 어항 및 도서의 복합공간화를 담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은 지역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역 수산식품 소비촉진, 수산식품 시장경쟁력 강화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귀어귀촌 활성화, 어촌주민 역량강화, 도어교류 활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2-1] 어촌산업의 모델

## 2.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 1) 충남 해양수산 일반현황

충남의 해안선(1,242km)은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전남(6,743km), 경남(2,513km)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길다. 충남의 갯벌면적은 357㎢로 전국 3번째로 넓으며, 이 중 태안군 면적이 139.3㎢로 가장 넓다. 충남의 갯벌면적은 1987년 434㎢에서 2013년 357㎢로 21.5% 급감 하였다<표 2-3>.



[표 2-3] 시도별 갯벌면적 변화 (1987~2013)

(단위 : km<sup>2</sup>)

구 분	1987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전 국	3,203.0	2,393.0	2,550.2	2,489.4	2,487.2
인 천	-	685	737.1	703.9	709.6
경 기	1,179.6	153.5	177.8	168.8	165.9
충 남	434.2	304.2	367.3	358.8	357
전 북	321.6	113.6	132	117.7	118.2
전 남	1,179.1	1,054.1	1,017.4	1,036.9	1,044.4
경 남	89.1	59	91.4	79.1	68.8
부 산	-	23.6	27.2	24.2	23.3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 갯벌 면적 조사”, 각 년도

충남의 도서는 총 268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 33개, 무인도 235개이다<표 2-4>. 충남도내에서 도서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태안군 118개이고, 다음으로 보령 91개, 서산 27개 순이다. 유인도서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보령시 16개이고, 그 다음으로 태안 8개, 서산 4개 순이다.

[표 2-4] 충남 시군별 해안선 및 도서

지 역	해안선 (km)	도 서					
		유·무인도서 (개소)			면적 (km <sup>2</sup> )	세대수 (세대)	인구 (명)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1,242.0 (100.0%)	268	33	235	164.188	8,763	17,085
보령시	273.0 (22.0%)	91	16	75	25.848	1,650	3,323
아산시	7.7 (0.6%)	-	-	-	-	-	-
서산시	149.0 (12.0%)	27	4	23	3.187	170	329
당진시	115.1 (9.3%)	9	3	6	5.246	185	328
서천군	111.5 (9.0%)	12	1	11	0.964	59	100
홍성군	26.4 (2.1%)	11	1	10	0.189	31	70
태안군	559.3 (45.0%)	118	8	110	128.754	6,668	12,935

자료 : 충청남도, “2016년 수산현황”

충남에는 총 35개소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다. 이 중 태안군이 30개소로 가장 많고, 보령시 2개소, 당진시 2개소, 서천군 1개소 순이다<표 2-5>. 해수욕장 이용관광객 수는 보령시가 충남 전체의 73.9%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태안군의 약 6배, 서천군의 약 11배, 당진시의 약 100배 수준이다.

[표 2-5] 충남 이용관광객 상위 5위 해수욕장 (2016)

(단위 : 명)

해수욕장명	지역	이용관광객 수
대천	보령	12,351,000
춘장대	서천	1,952,450
무창포	보령	1,054,400
만리포	태안	416,100
꽃지	태안	260,300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윤종주 외(2016) 재인용

전국적으로 항만은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이고, 신항만은 10개가 있다. 이 중 충남은 무역항 5개소, 연안항 2개소, 신항만 1개소가 위치해 있다<표 2-6>. 충남의 무역항은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이상, 국가관리), 태안항, 보령항(이상, 지방관리)이 있다. 충남의 연안항은 모두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대천항, 비인항이고, 신항만은 보령신항이다.

[표 2-6] 충청남도 항만지정 현황

구 분	관 리	항 만 수		항 만 별
		전국	충남	
계	계	60개	7개	
무역항	소 계	31개	5개	
	국가관리	14개	3개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지방관리	17개	2개	태안항, 보령항
연안항	소 계	29개	2개	
	국가관리	11개	-	
	지방관리	18개	2개	대천항, 비인항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현재 충남 내 운영 중인 마리아는 보령요트경기장이 유일하나, 향후에는 마리아항만 7개소, 어촌마리아역 2개소가 입지할 예정에 있다<표 2-7>. 마리아항만은 무창포, 원산도, 창리, 왜목, 장고항, 홍원, 안흥이고, 어촌마리아역은 삼길포항, 남당항이다.

[표 2-7] 충청남도 마리아(예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	홍성
계	10	3	2	2	1	1	1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7	2 (무창포, 원산도)	1 (창리)	2 (왜목, 장고항)	1 (홍원)	1 (안흥)	
어촌마리아역 예정구역	2		1 (삼길포항)				1 (남당항)
운영마리아	1	1 (보령요트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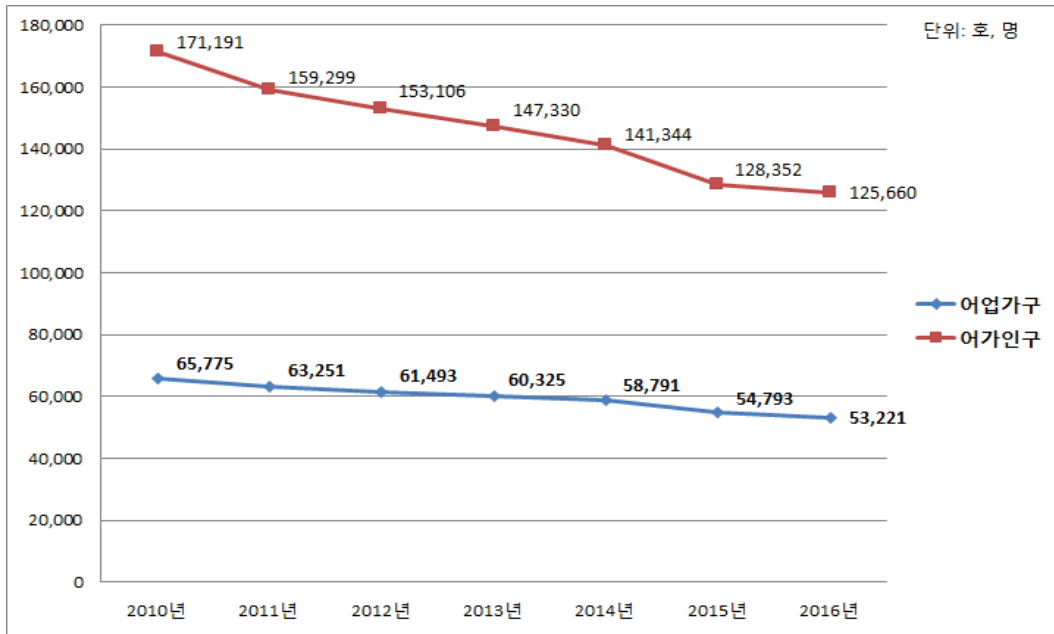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생태계·경관 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은 각 1개소가 위치해 있다. 생태계·경관 보전지역은 신두리 사구로서 다양한 식생과 특이지형을 보유하고 있다. 습지 보호지역은 서천갯벌로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독특한 습지자연경관이 특징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가로림만 해역으로 점박임물범, 붉은발말뚝게, 거머리말, 흰발농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어촌의 변화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촌 공동체 붕괴 및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어업가구는 2010년 대비 2016년 26.6%, 어가인구는 19.1% 감소하였다<그림 2-2>. 어업가구 감소는 어촌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고 어촌 전통문화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고, 어가인구 감소는 어촌마을 과소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어가인구보다 어업가구의 감소율이 커짐에 따라 어촌의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54.9%를 점하고 있다.<sup>4)</sup> 한편, 충남의 어가 수는 8,550호이고, 어업인구는 19,283명으로 전국 대비 어가 수는 16.1%, 어업인구는 15.3%를 점하고 있다.

4) 2015년 대비 0.8% 증가; 자료: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2-2] 우리나라의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농림어업조사

우리나라 어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32.5%로 국가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 13.2%과 비교하여 약 2.5배 높다.<sup>5)</sup>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어업경영주는 60대가 전체의 35.3%, 70세 이상이 26.8%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62.1%를 점하고 있다<표 2-8>. 평균연령은 2015년 62.5세, 2016년 63.1세로 전년대비 0.6세 증가하였다<표 2-8>. 어업경영주의 70세 이상 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2016년에 3.6% 증가하였다<표 2-8>.

[표 2-8] 어업경영주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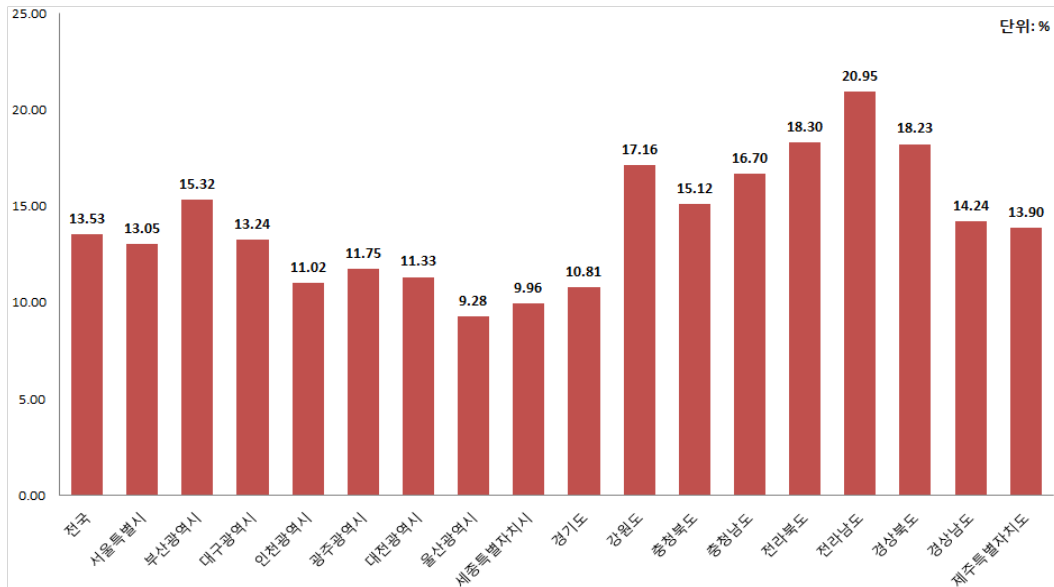
(단위: 천 호, 세, %)

연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연령
2015년	54.8 (100)	1.5 (2.8)	5.2 (9.5)	15.3 (27.9)	19.1 (34.8)	13.7 (25.0)	62.5
2016년	53.2 (100)	1.3 (2.4)	4.8 (9.1)	14.1 (26.4)	18.8 (35.3)	14.2 (26.8)	63.1
증감률	-2.9	-14.6	-6.6	-8.1	-1.6	3.6	

자료: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도자료

5)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도자료. (※ 고령인구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연안에 위치한 사·도가 내륙지역 사·도보다 고령화율이 높아, 연안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그림 2-3>. 전반적으로 광역도가 광역시보다 높은 고령화율 보이고, 광역시 중에서는 연안지역인 부산광역시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광역도 중 고령화율 순위는 전남(21.0%) > 전북(18.3%) > 경북(18.2%) > 강원(17.2%) > 충남(16.7%) 순이고, 경기, 경남,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내륙지역인 충북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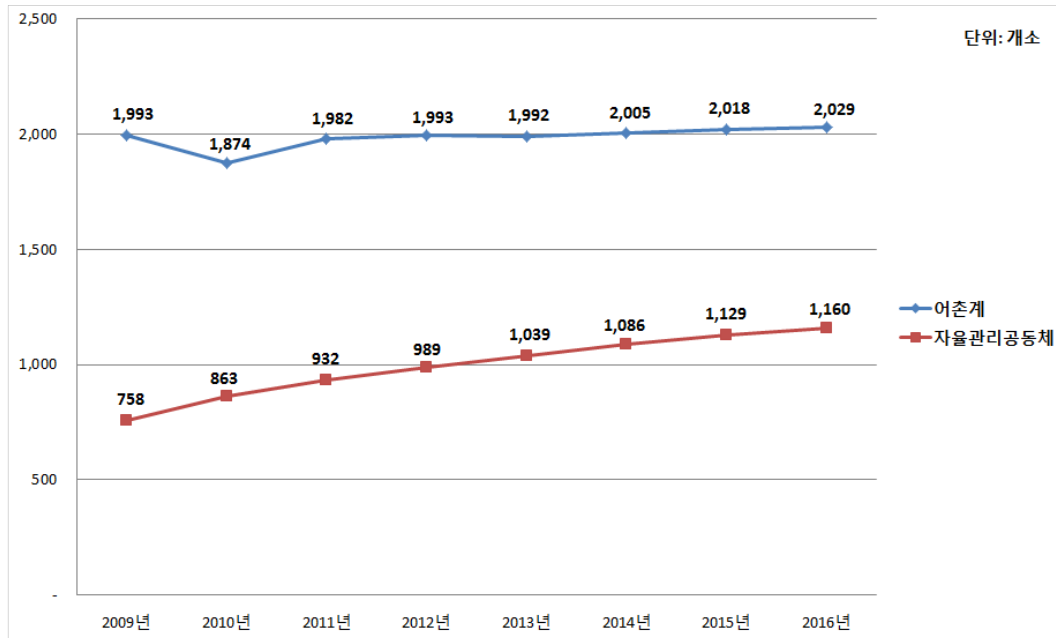
[그림 2-3] 우리나라 사·도별 고령화율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e-지방지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속에서도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어촌체험마을 등 어촌 공동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어촌계 수는 2016년 2,029개로 2009년에 비하여 36개 증가하였다<그림 2-4>. 어촌계가 새로 생긴 것보다는 기존 어촌계가 분화되어, 규모가 작아지고 공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전국 자율관리공동체는 2015년 1,160개로 2009년 대비 50% 증가 하였으며, 이는 자율관리어업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 어촌계 및 어업단체의 참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2-4>. 한편 전국 어촌체험마을은 2008년 75개에서 2016년 112개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정 및 취소를 반복하면서 어촌체험마을의 질적인 성장도 독려하고 있다.<sup>6)</sup>

6)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촌체험마을은 113개가 운영 중

전국의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은 2015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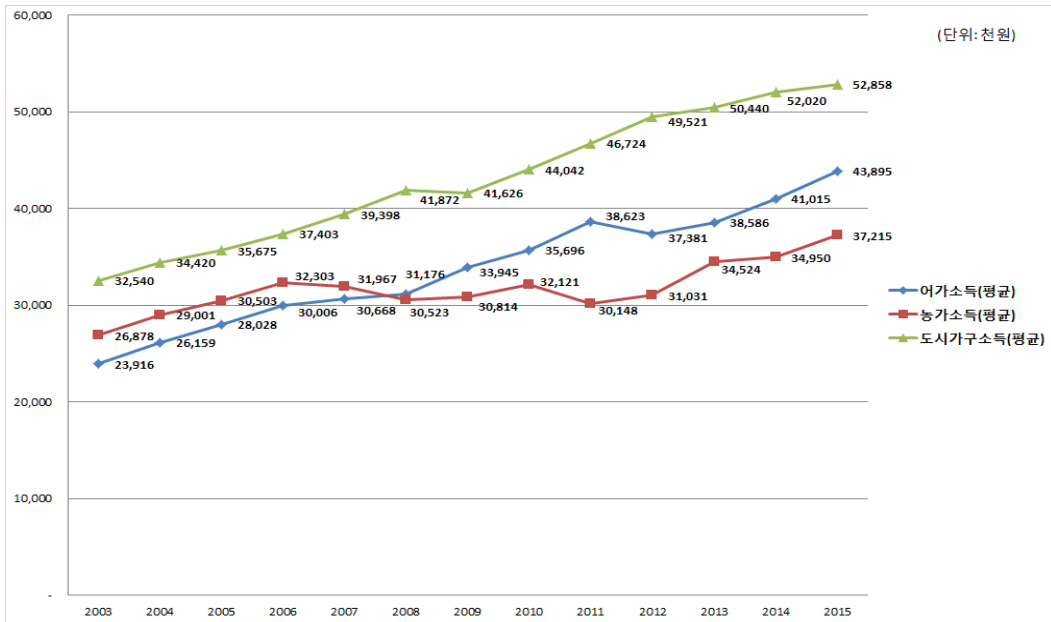


자료 : KMI,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 수협중앙회, 「2016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한국수산업, 「자율관리어업&수산 소식 제105호」, 자율관리어업 HP <http://www.jayul.go.kr>

[그림 2-4]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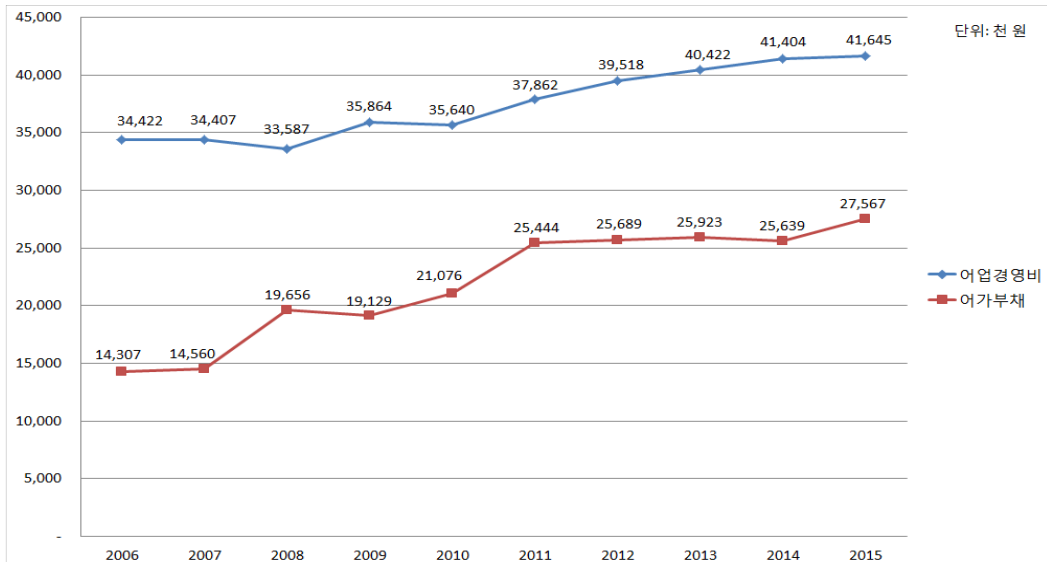
2008년 기점으로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을 추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위상이 제고되었으나,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어가소득과 농가소득의 차는 평균 6,680천 원으로 어가소득이 앞서고 있다<그림 2-5>. 그러나 도시가구소득과 어가소득의 격차는 2011년을 기점으로 커지기 시작하여 2015년 기준으로 평균 8,963천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림 2-5>.

한편, 어업경영비 및 어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어가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어업경영비는 2015년에 27,567천 원으로 2006년 대비 92.7% 증가하였고, 어가부채는 2015년에 41,645천 원으로 2006년 대비 21.0% 증가하였다<그림 2-6>. 어업경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유류비, 기자재비 등 어로비용이 증가하였고, 또 10년 전과 비교하여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어가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수산자원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반면 어업경영비는 증가하여 어가경제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 : 도시가구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명)에 12를 곱한 수치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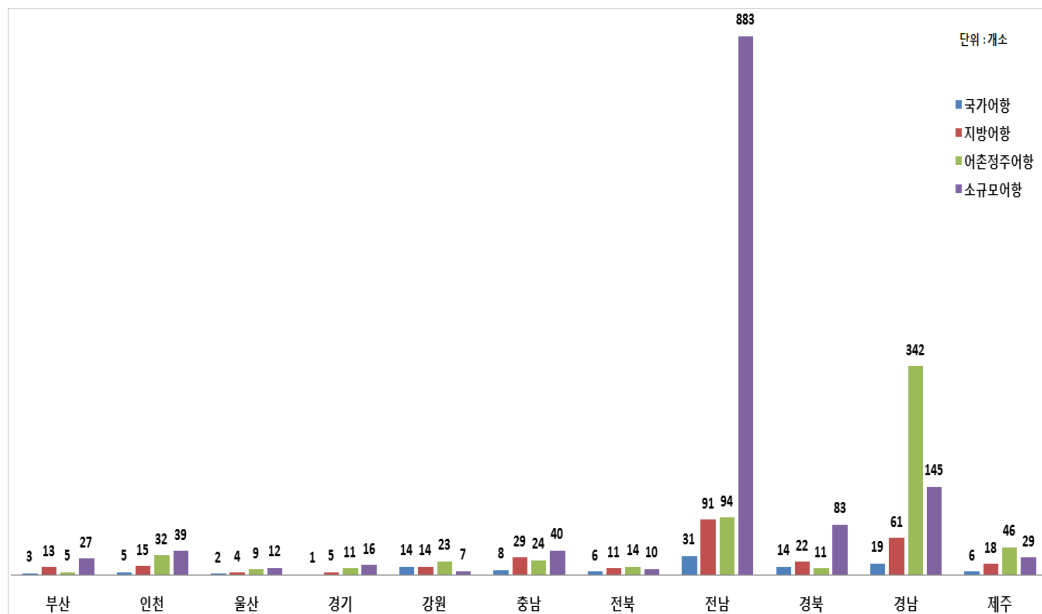
[그림 2-5] 농가 및 어가 소득 비교



자료 : KMI,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

[그림 2-6] 어업경영비 및 어가부채 현황

전국적으로 총 2,294개의 어항이 있고, 대부분 전남과 경남에 밀집되어, 어촌·어항 기반이 남해안에 편중되어 있다<그림 2-7>. 전국적으로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3개, 어촌정주어항 611개, 소규모어항 1,291개가 위치해 있다. 국가어항은 전남(31개) > 경남(19개) > 경북(14개), 강원(14개) > 충남(8개) 순이고,<sup>7)</sup> 지방어항은 전남(91개) > 경남(61개) > 충남(29개) > 경북(22개) 순이다. 어촌정주어항은 경남(342개) > 전남(94개) > 제주(46개) > 인천(32개) > 충남(24개) 순이고, 소규모어항은 전남(883개) > 경남(145개) > 경북(83개) > 충남(40개) 순이다.<sup>8)</sup>



자료 : KMI,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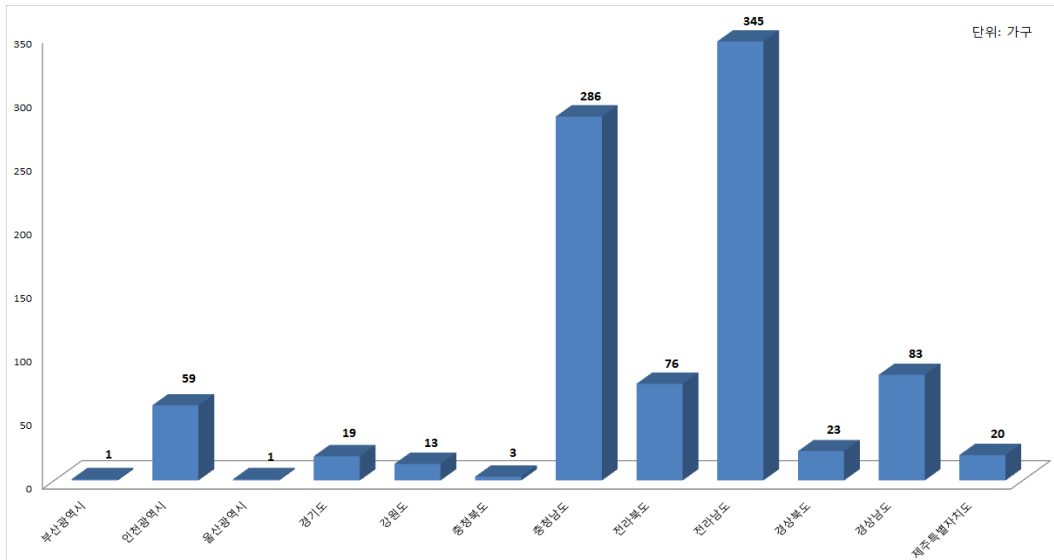
[그림 2-7] 우리나라 어항의 현황

전국적으로 귀어가구는 전남(345호, 37.1%) > 충남(286호, 30.8%) > 경남 (83호, 8.9%) > 전북 (76호, 8.2%) 순이고, 수도권과 근접한 충남, 전북과, 수산세력이 큰 전남, 경남을 선호하고 있다. 귀어가구는 2013년 650호, 2014년 917호, 2015년 991호, 2016년 929호로 증가하고 있으며, 귀어인도 2013년 690명, 2014년 978명, 2015년 1,078명, 2016년 1,33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7) 충남의 국가어항은 보령 무창포항이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승격되어 2017년에는 9개소임

8) 위의 통계수치는 2016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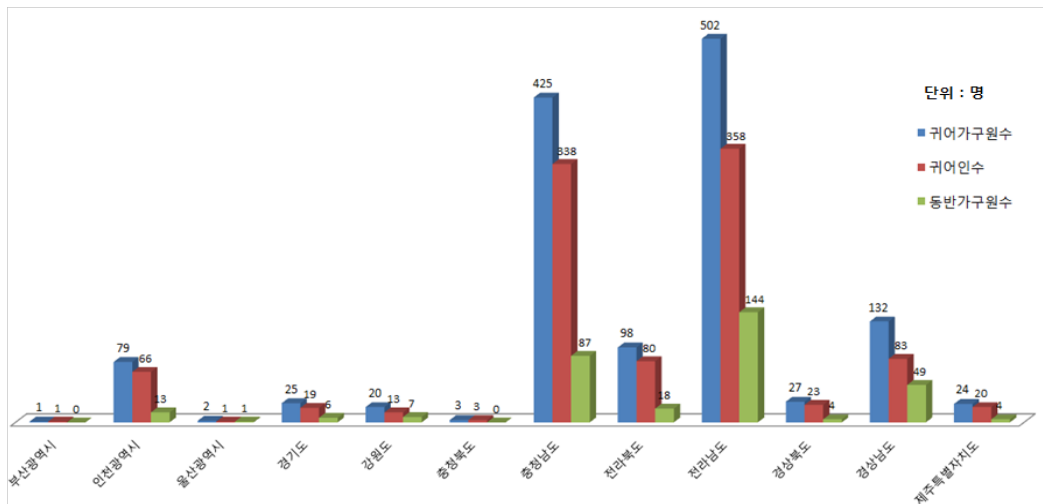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귀농어·귀촌인 통계

[그림 2-8] 시도별 귀어가구 현황

한편 귀어가구원, 귀어인, 동반가구를 보면, 전국 1위는 전남으로 귀어가구원 502명, 귀어인 358명, 동반가구원수 114명이다. 전국 2위는 충남으로 2016년 기준 귀어가구원 425명, 귀어인 338명, 동반가구원 87명에 랭크되어 있다<그림 2-9>.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귀농어·귀촌인 통계

[그림 2-9] 우리나라 귀어귀촌 현황 (2016년)

어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통,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2012년 기준으로 도서 54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164명에 크게 못 미친다. 그리고 병·의원,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어촌은 342개소로 전체 도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어촌의 버스 미운행률은 59.6%에 달하고, 여객선 운항 빈도도 1일 2회 이하가 전체의 50%이다. 한편, 어촌의 문화여가시설 접근성은 소요시간 47분으로 도시 평균 21분의 약 2배이고, 어촌의 하수도 보급률도 52.9%로 도시의 90.9%에 크게 못 미친다.」<sup>9)</sup>

### 3) 충남 어촌의 현황

충남의 어가 수 및 어업인구는 각 8,550호, 19,283명으로 전국 대비 각 16.1%, 15.3%를 점유하고 있다<표 2-9>. 전국의 어가 수는 53,221호, 어업인구는 125,660명으로 어가 수는 전국 2위, 어업인구는 전국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충남의 어업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209만 명) 대비 0.9%, 도내 농가(296천 명) 대비 6.5%를 점하고 있다.

[표 2-9] 충남의 어가 및 어업인구 (2016)

구 분	전 국 (명)	충 남	전국 대비 비율
어가 수 (호)	53,221	8,550	16.1%
어업인구 (명)	125,660	19,283	15.3%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어촌계 수는 167개, 어촌계원은 16,162명이다.<sup>10)</sup> 이는 전남(848개), 경남(473개)에 이어 전국 3위의 규모이다.<sup>11)</sup> 이 중 약 절반이 태안군에 위치해 있다. 어촌계가 가장 많은 지역은 태안군 89개(53.3%), 보령시 26개(15.6%) 순이고, 어촌계원이 가장 많은 지역도 태안군 6,852명(42.4%), 보령시 4,019명(24.9%) 순이다<표 2-10>. 한편, 주로 어촌계 중심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123개(10,045명)이다.

9)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참고

10)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2016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및 분류평정”에 의하면 충청 166개소이나, 본 연구는 충청남도 업무자료를 이용하였음

11) 전국 어촌계수는 2,029개소, 어촌계원은 약 132,990명 (2016년 기준), 자료 : 2016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및 분류평정

[표 2-10] 충남의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2016)

구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아산
어촌계	167개 (100%)	26 (15.6%)	18 (10.8%)	7 (4.2%)	19 (11.4%)	7 (4.2%)	89 (53.3%)	1 (-%)
어촌계원	16,162명 (100%)	4,019 (24.9%)	1,126 (7.0%)	1,933 (12.0%)	1,519 (9.4%)	634 (3.9%)	6,852 (42.4%)	79 (0.5%)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에 위치해 있는 수협은 8개이고, 보령수협, 대천서부수협, 서산수협, 당진수협, 서천군수협, 서천서부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도수협이다<표 2-11>. 수협에 소속된 위판장은 27개이고, 보령수협, 서천서부수협, 태안남부수협이 각 5개씩 보유하고 있다<표 2-11>.

[표 2-11] 충남 수협별 위판장 현황 (2016)

구 분	계	보령수협	서천군수협	서산수협	서천서부수협	태안남부수협	안면도수협	대천서부수협	기타
개 소	27	5	1	3	5	5	3	1	4
면적(㎡)	49,286	21,613	1,459	2,837	10,089	4,317	2,014	4,225	2,732

주 : 기타는 무창포어촌계 1(990㎡), 도항어촌계 1(756㎡), 서해잡수기 1(402㎡), 채석포항 위판장 1(584.3㎡)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수산업경영인은 총 1,690명으로 태안군이 55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령시 503명이다<표 2-12>. 이 중 어업인후계자가 1,276명으로 가장 많고, 전업경영인 393명, 선도우수경영인 21명 순이다.

[표 2-12] 충남 수산업경영인 현황 (2016)

(단위 : 명)

구 분	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내륙
계	1,690	503	13	113	80	295	52	550	84
어업인후계자	1,276	376	11	93	56	230	42	418	50
전업경영인	393	112	2	19	24	63	10	130	33
선도우수경영인	21	15	0	1	0	2	0	2	1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어업권은 총 1,231건이고, 이 중 양식어업권 840건(68.2%), 마을정치어업권 391건(31.8%) 순이다. 면적상으로는 18,180ha이고, 이는 전국 286,703ha의 6.3%를 점하고 있다. 충남 어업권 중 가장 많은 것은 패류로서 516건(4,863ha)이다<표 2-13>.

[표 2-13] 충남 어업권 현황 (2016)

계		양 식										마을·정치	
		소 계		해조류		패 류		어 류		복합협동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건	ha
1,231	18,180	840	11,400	60	3,834	516	4,863	177	1,544	87	1,159	391	6,780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어선은 5,864척(26,408톤)으로 전국대비 척 수로는 8.3%, 톤수로는 4.5%를 점하고 있다. 어선은 동력선이 5,800척으로 충남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낚시어선은 1,151척이 있으며, 이는 전국(4,289척)의 26.8%를 점하고 있다<표 2-14>. 충남의 무동력선은 64척, 톤수로는 68톤을 보유하고 있다.

[표 2-14] 충남의 어선 보유 현황 (2016)

구 분	계		동 력		무 동 력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수	톤 수
충 남	5,864 (1,151)	26,408	5,800 (1,151)	26,341	64	68
전 국	70,765 (4,289)	584,002	69,495 (4,289)	582,719	1,270	1,283
전 국 대 비 율	8.3% (26.8%)	4.5%	8.6% (26.8%)	4.5%	4.9%	5.3%

주: ( )는 낚시어선 척수 및 비율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낚시이용객은 연간 67만 명이고, 수입액은 688억 원 수준이다. 낚시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보령시로 2016년에 262,500명이 방문하였고, 태안군에도 228,159명이 방문하였다. 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태안군으로 342억 원, 보령시가 210억 원 수준이고, 척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천군으로 9천5백만 원에 달한다<표 2-15>.

[표 2-15] 충남 낚시이용객 및 수입 현황 (2016)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이 용 객 (명)	670,878	262,500	12,262	51,080	94,800	22,077	228,159
수 입 액 (백만원)	68,774	21,000	1,226	3,320	7,584	1,420	34,224
척당소득 (백만원)	60	58	24	23	95	34	71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어항은 총 61개이고, 이 중 국가어항 9개, 지방 28개, 어촌정주 24개이다. 국가어항은 장고항, 오천, 외연도, 삼길포, 홍원, 모항, 안흥, 남당, 무창포이다. 이 중 무창포는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승격하였다.

[표 2-16] 전국 및 충남 어항 현황 (2016)

(단위 : 개)

구 분	계	국 가	지 방	어촌정주
충 남	61	9	28	24
전 국	1,003	111	281	611
전국 대비 비율	6.1%	8.1%	10.0%	3.9%

주 :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2017년 무창포의 국가어항 승격을 반영함

자료 :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122.7천 톤이고, 생산금액은 4,317억 원으로 이는 전국대비 각 3.8%, 5.8% 수준이다<표 2-17>. 전국적으로 천해양식어업이 일반해면어업보다 생산량이 많으나, 충남은 일반해면어업이 천해양식어업보다 생산량이 많다<표 2-18>. 생산금액도 일반해면어업이 천해양식어업보다 약 3배 높고 전체의 73.1%를 점하고 있다.

[표 2-17] 충남 수산물 생산량 (2016)

(단위: 천 톤)

구 분	합 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어업	원양 어업	내수면 어업
		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 동물	기타 수산물	해조 류			
충 남	122.7	66.1	34.7	8.8	16.6	4.3	0.6	1.0	53.2	-	3.4
전 국	3,256.7	916.4	608.8	85.1	55.7	149.0	7.5	10.3	1,851.3	453.6	35.4

자료: 충청남도 업무자료

[표 2-18] 충남 수산물 생산금액 (2016)

(단위: 억 원)

구 분	계	해 면	천해양식	내 수 면	원 양
충 남	4,317	3,157	980	180	-
전 국	74,256	37,025	23,328	4,175	9,728

자료: 충청남도 업무자료

충남의 수산물가공업체는 298개로 전국(2,881개) 대비 10.3% 점유하고 있다. 수산가공품 수출액은 56,692천 달러로 전국(1,912,336천 달러) 대비 2.9%이고, 수산가공품 생산실적은 134,768톤으로 전국(1,829,141톤) 대비 7.3%이다.

충남의 내수면어업계는 74개이고, 어업가구 284호, 어업인구 862명이 있다. 내수면 어업 가구는 전국(3,659호)대비 7.8%이고, 어업인구는 전국(10,848명)대비 7.9% 수준이다. 그리고 충남의 해면인구 18,112명 대비 4.8% 수준이다. 충남의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4천 톤이고, 생산금액은 180억 원이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국(35.4천 톤)대비 10.0%이고, 생산금액은 전국(4,175억 원)대비 4.3%를 점하고 있다. 충남의 내수면 어업권은 679건(2016년)이고, 허가어업 368건, 신고어업 289건, 면허어업 22건이 있다. 내수면 어업권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 171건이고, 그 다음으로 태안 161건, 논산 82건, 당진 72건, 부여 42건, 청양 34건 순이다<표 2-19>.

[표 2-19] 충남 내수면 어업권 현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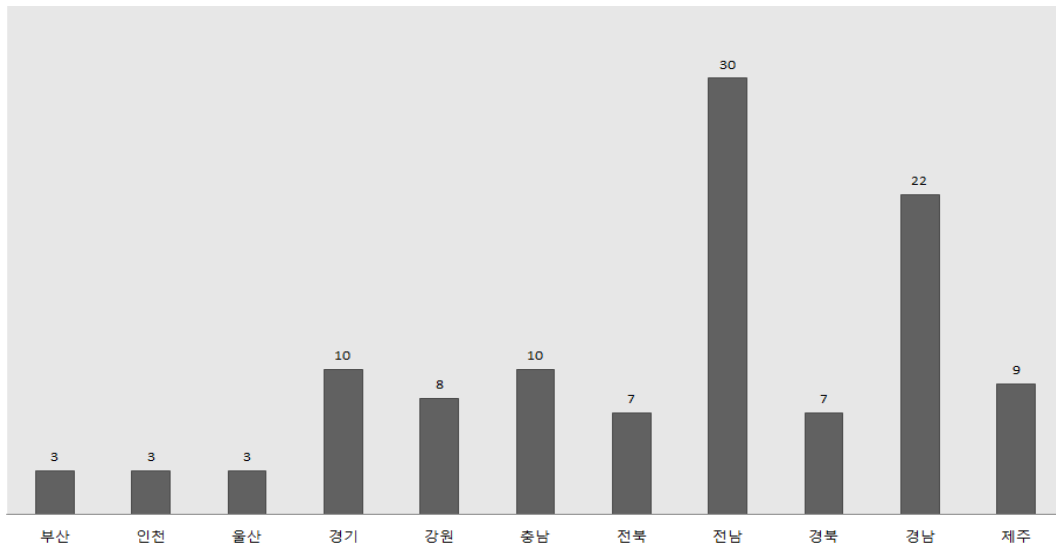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679	10	13	19	171	18	82	0	72	24	42	17	34	8	8	161
면허	22	-	-	-	-	3		-	17	-		1	-	-	-	1
허가	368	-	-	6	116	3	55	-	6	15	8	8	2	1	8	140
신고	289	10	13	13	55	12	27	-	49	9	34	8	32	7	-	20

자료: 충청남도 업무자료

#### 4)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충남의 어촌체험마을은 10개가 설립·운영 중이고, 보령시(무창포, 장고도, 삽시도), 서산시(중리, 웅도), 서천군(월하성), 태안군(대야도, 만대, 용신, 병술만)에 위치해 있다.<sup>12)</sup> 전국에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12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으며, 충남은 전남(30개), 경남(22개)에 이어 경기(10개)와 같다<그림 2-10>.



자료: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그림 2-10] 지역별 어촌체험마을 현황 (2016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해양수산부, 2015).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4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이 중 충남은 2013년 태안 중장5리(대야도) 마을, 2014년 서산 중왕(중리) 마을, 2015년 서산 웅도마을, 2016년 당진 교로2리, 서천 송림마을이 선정되었다(표 2-20).<sup>13)</sup> 한편 2017년부터는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도하여 태안 병술만과 만수동, 보령 효자도, 홍성 죽도 등에서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0]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현황

연도	대상 어촌마을
2013년	태안 중장5리(대야도마을)
2014년	서산 중왕(중리마을)
2015년	서산 웅도
2016년	당진 교로2리, 서천 송림마을

자료 :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1차(2014~2015년), 2차(2016~2018년)가 실시되었다. 대상마을은 1차, 2차에 걸쳐 총 10개소이고, 충남에서는 1차 시범사업으로 태안 대야도마을(중장5리)과 2차 시범사업으로 서산 중리마을(중왕리)이 선정되었다. 태안 대야도마을은 우럭 가공시설 건립, 어가레스토랑을 설립·운영하고, 서산 중리마을을 감태 가공시설 건립, 감태 가공식품 개발을 주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2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충남 현황

연차	마을 명	주요 내용
1차	태안 대야도마을	(1차) 우럭, 바지락, 낙지, 해삼 등, (2차) 우럭 가공시설 및 레스토랑 건립, (3차) 우럭 요리개발, 마을브랜드 개발 등
2차	서산 중왕마을	(1차) 감태, 낙지 등 생산, (2차) 감태 가공시설 건립, (3차) 조미감태 유통망 확보, 감태 분말 초콜릿 만들기 체험장 조성 등

자료 :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12)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13) 이 중, 서천 죽산은 참여의지가 없어서 포기



한편, 김종화(2015)에 의하면 현재 어촌계 자체적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어촌계는 총 37개소이다<표 2-22>, <표 2-23>. 이들 어촌계 대부분은 갯벌, 바지락, 낚시 등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수산물 직매장, 어촌 레스토랑, 가공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종화, 2015).

[표 2-22]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황 (1)

시·군	어촌계명	추진주체	추진내용	지원받은 내역
당진	한진	어촌계	바지락체험, 바지락 축제	자율관리공동체 이미지개선사업 지원
	난지도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어촌체험	
서산	응도	어촌계	비지락 가공공장	도서개발사업 지원
서천	띠섬목	어촌계	바지락 체험, 해삼체험	
	송석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홍원	어촌계	어촌 레스토랑, 활어 장터 및 판매장	활어 장터 건물 지원
	요포공정	어촌계	낚시매점	
	월하성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사무장 급여, 갯벌체험장 건물 지원
	송림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마량리	어촌계	활어 장터 및 판매장	활어 판매장 건물 지원
홍성	궁리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권역단위사업 지원
	거차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보령	진창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어촌 갯벌체험 지원 예정(2016년 확정)
	삼시도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소영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무창포	어촌계	어촌체험관광, 갯벌체험	자율관리어업 졸업공동체, 어촌체험마을 지원 등
	선진	어촌계	바지락 체험, 어촌체험	찾아가고 싶은 섬 체험관 및 해상펜션
	어항	어촌계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공장, 건조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 지원 예정
	남포죽도	어촌계	어가 레스토랑	레스토랑 설립 지원
	군현	어촌계	김 가공공장, 어촌체험	
	고잠	어촌계	바지락 체험	

자료: 김종화(2015)

[표 2-23]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어촌계 현황 (2)

시·군	어촌계명	추진주체	추진내용	지원받은 내역
태안	신진도	어촌계	바지락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바지락 종묘 지원
	용신리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어촌체험마을 지원
	곰섬	어촌계	바지락 체험	바지락체험 등 지원
	드르니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직매장, 자율관리어업 지원 등
	원청리	어촌계	어촌체험관광(독살체험)	유어장 종묘 지원
	진산	어촌계	바지락 체험	
	의항2리	어촌계	갯벌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바다낚시	바다낚시공원 조성
	모항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직매장건물지원
	법산	어촌계	바지락체험, 염전체험	
	천리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지원
	파도	어촌계	굴껍질 분쇄 가공공장	자율관리어업지원등
	모항2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학암포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대야도	어촌계	어촌체험, 수산물 직매장(판매장)	가공공장,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지원 등
	병술만	어촌계	갯벌체험, 어촌체험, 낚시	어촌체험마을 지원
	구매	어촌계	갯벌체험, 낚시체험	

자료: 김 중화(2015)

### 3. 충남 어촌산업의 진단 및 SWOT

앞의 전국 및 충남의 어촌현황을 바탕으로 충남 어촌산업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어촌)관광 분야 강점에 있으며 전망도 밝다. 충남에는 어촌체험마을이 10개소가 위치해 있고, 다양한 어촌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촌관광에서 강점을 점하고 있다. 보령 머드 축제를 비롯하여 대하·전어 축제, 김 축제, 젓갈축제 등 다양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테마로 하는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연간 약 1,200만 명의 해수욕장 관광객과 67만 명의 낚시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마리나항만, 어촌마리나역 등의 해양레저산업과 연계된 해양(어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해양(어촌)문화 발굴·육성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서해안의 다양한 해양(어촌)문화가 존재하나, 이를 발굴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당진 안섬풍어당굿, 태안 황도 봉기풍어제, 서산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등 다양한 어촌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록과 보전,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은 태안·보령 독살, 보령 주목낭장망 등과 같은 전통적인 어업유산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 또는 세계의 중요어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어항 및 도서 복합공간화를 통한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어항과 도서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휴양, 레저·관광, 문화·복지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다목적어항(남당항), 어촌마리나역(삼길포항, 남당항) 등의 개발을 통하여 어항을 지역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도서의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충남에는 태안 중장5리(대야도어촌계), 서산 중왕리(중왕어촌계)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어촌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설립·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어업인 및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의 어촌마을이 정책취지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수용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다섯째,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남의 위판장은 총 27개소가 있고 지속적으로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령과 태안에서는 수산식품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최근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김(마른김, 조미김)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식품관련 대내외적 여건이 호조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남에는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이 설립되지 않았고, 김을 제외한 품목의 산업화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충남의 수산가공업체는 298개소로 전국 대비 10.3%를 점유하고 있으나, 생산실적은 7.3%에 불과하여 단순 가공비율이 높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는 조미김(광천, 대천, 서천), 젓갈(광천, 서산, 논산)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식품 및 지역브랜드 창출이 필요하고, HACCP, ISO 등의 식품안전 설비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하여 지역 수산식품의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외에서도 충남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충남은 전국 2위의 귀어귀촌 지역으로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어 귀어귀촌인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전국 2위의 귀어귀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귀어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이나 지원정책이 미흡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어촌계진입장벽완화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귀어귀촌인들이 큰 어려움없이 어촌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 자체적인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

여덟째, 어촌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충남도, 각 시·군별로 어촌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충남도 주도로 지역수협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수협 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충남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농촌에 비하여 어촌은 그 수나 범위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따라서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 및 어촌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의 큰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어교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과거 1사1촌 자매결연, 어촌체험마을 등 도어교류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충남도 차원의 도어교류사업 미흡하였다. 귀어귀촌, 어촌관광 등과 연계한 도어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도어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 강화해야 한다. 이상의 충남 어촌산업의 진단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 <표 2-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 2-24] 충남 어촌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아스식 해안, 넓은 갯벌의 천혜 자연환경</li> <li>• 안면도, 대천항, 무창포 등 관광자원 풍부</li> <li>• 다양하고 신선한 서해안어종 보유</li> <li>•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소비권 시장과 인접</li> <li>• 광천 김, 광천젓갈, 어리굴젓 등 수산가공식품의 높은 인지도</li> <li>• 중국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접근용이성</li> <li>• 해삼, 김 등 대중국 수출 전략 품목 보유</li> <li>• 수산가공산업, 6차산업화에 인적 자원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여성화 심화</li> <li>• 상대적으로 낮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량</li> <li>•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통가공수출 시설</li> <li>• 관습화된 유통망으로 새로운 유통채널 도입 제한</li> <li>•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로 부족</li> <li>• 1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융복합 산업화 제한</li> <li>• 어업 생산비용 증가 및 어선노후화 심화</li> <li>• 지속적인 어로인력 확보 어려움</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 기회 확보</li> <li>• 서산 대천항 - 중국 용안항 간의 항로 개설</li> <li>•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 및 관광객 증가</li> <li>•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 및 정부 지원 확대</li> <li>•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서 수산물의 인지도 향상</li> <li>•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섭취비중 증가</li> <li>• 소비자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높은 충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li> <li>•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및 해양생태계 교란</li> <li>• 중국 불법어업 심화 및 남획</li> <li>• 해양사고 발생 및 오염원 확대</li> <li>•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수산물과의 경쟁 심화</li> <li>• 북핵 위협,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에 따른 중국시장의 불확실성</li> </ul>

## 제3장 지식경영 관점의 어촌산업 사례분석

### 1. 지식경영 이론<sup>14)</sup>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은 일본의 노나카 이쿠지로(野中郁次郎)가 제창한 것으로 기술개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이다. 지식경영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암묵지(暗黙知)와 형식지(形式知)로 반복적으로 변환시키면서, 그 안에서 신기술과 신상품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암묵지는 주관적, 경험적인 아날로그적인 지식이고, 형식지는 객관적, 이론적 디지털(매뉴얼)화가 가능한 지식이다. 노나카는 암묵지를 개개인의 경험과 특정상황에 근거하여 지식이 있는 신념과 관점, 가치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훗타(堀田)는 이러한 노나카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식화되기 이전에 연계조직 내에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형식화로 변환하는 관점과 가치시스템을 형성하는 큰 요소로 암묵지를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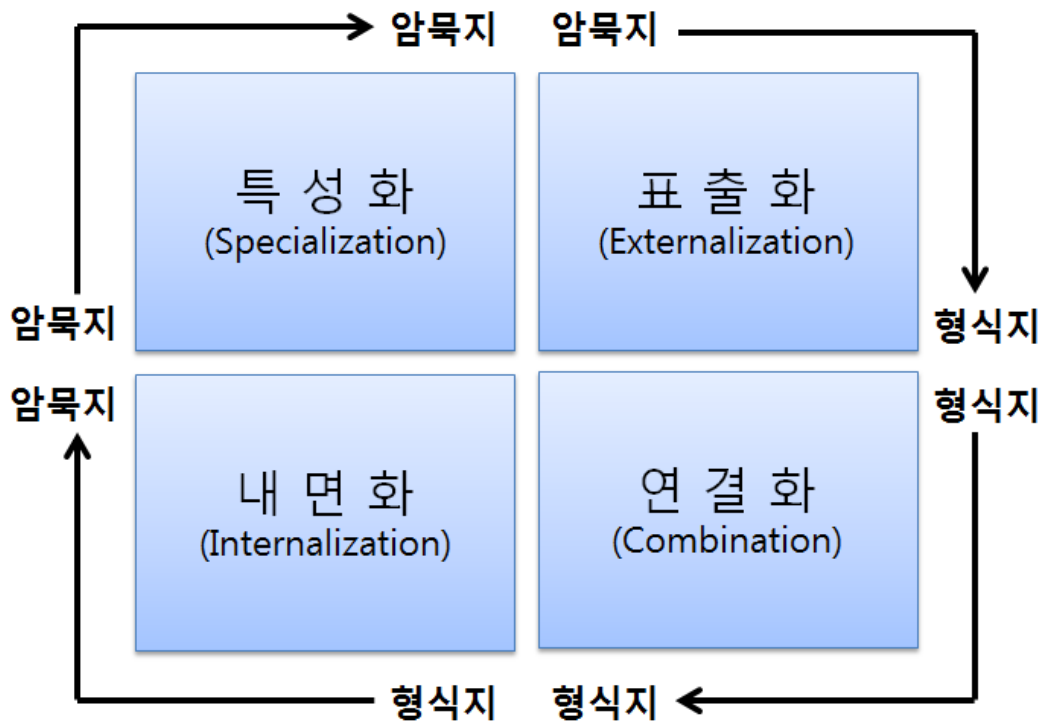
한편 지식경영에서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변환을 반복하는 4단계의 지식변환모드가 있으며 이는 <그림 3-1>과 같다. 특성화(Specialization)는 조직 내 구성원이 상호 암묵지를 공유하는 것을 계획하는 과정이고, 표출화(Externalization)은 서로 암묵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연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암묵지화를 형식지화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연결화(Combination)는 형식지화가 진행되어 개발된 상품이 보다 많은 원료를 확보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형식지화(매뉴얼)되는 방법을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확장하는 과정으로 형식지를 형식지 프로세스로 반복하는 것이다. 내면화(Internalization)는 지금까지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형식지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형식지에서 새로운 암묵지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어촌산업은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어촌에서 보유한 수산물과 역사문화자원 등을 암묵지로 보유하였고, 이를 주민교육 등을 통하여 특성화시켰다. 그리고 마을조직 설립, 마을발전계획 수립, 수산식품 상품화,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으로 표출화하였다. 또 표출화를 통하여 형식화된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인지 확산, 정책지원

---

14)堀田(2012)를 참고하여 작성

사업 투자, 인적 자원 확대 등을 통하여 연결화되었다. 이러한 형식지를 통하여 지역축제의 규모화, 신규 수산식품 개발 등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암묵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경영 이론은 현재 어촌마을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부존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관심과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연결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내면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거나 기존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원자료 : 野中ら(1996), 자료 : 堀田(2012)

[그림 3-1]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

## 2. 지식경영을 활용한 사례분석

앞서 설명한 지식경영 이론을 활용하여 충남의 어촌산업을 선도하는 서산 중리마을과 태안 대야도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마을의 공통점은 어촌체험마을과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충남 대표 어촌마을이라는 것이다. 또 두 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대상마을이기도 하다.

### 1) 서산 중리마을

#### (1) 기본현황

중리마을은 중왕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체험·관광, 조미감태 생산 등 적극적인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왕어촌계는 서산시 중왕 1리와 2리의 어업인이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리마을의 전체 가구는 140호이고, 인구는 190명, 어촌계원은 101명에 달한다. 주요 어업권은 패류양식 10건(142ha), 어류 등 양식 1건(10ha), 유어장 2건이 있고, 어선은 동력 50척이다. 가구 당 평균소득은 4,50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요 생산품은 감태, 굴, 바지락, 낙지, 주꾸미, 우럭 등이 있다.」<sup>15)</sup>

중리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 함께 하여 총 47가구(110명)가 참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8월에 지정되었으며 연간 3~4만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있다(김종화, 2015). 2014년, 2016년에는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각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선도 어촌체험마을로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그 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수산부 이미지 개선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율관리공동체 해양수산부 장관상(2014년), 어업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2016년), 어촌계 진입장벽 충청남도지사 표창(2017년) 등을 수상하였다. 어촌개발과 관련된 정책사업으로 2014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2016년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근 왕산, 도성리와 함께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 충남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전국포럼 충남세미나” 자료집 참조



또 “해품”, “중왕리”와 같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 등록하였고, 2014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갯마을 뽕낙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태(가시파래)를 도시락형 조미감태로 가공하여 상품화하였으며, 감태비누도 생산·판매하는 등 어촌비즈니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료 : 김종 화(2015)

[그림 3-2] 중리마을 관련 사진

## (2) 지식변환모드에 따른 사례분석

중리마을의 대표사업 키워드는 크게 어촌체험마을, 갯마을 뽕낙지 축제, 조미감태 생산 등이다. 이들 대표사업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로 분석하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첫째, 암묵지로서만 존재하는 특성과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등을 추진하기 이전의 마을 상황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마을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소멸 위기감,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라 기존에 생산되던 굴, 바지락, 낙지, 감태, 조피볼락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중리마을의 존립이 위협받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때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을 겸비한 리더가 출현함으로써 어촌체험마을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리더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역량교육 등을 통한 어촌계원의 인식 개선 및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어촌계원뿐만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추진력이 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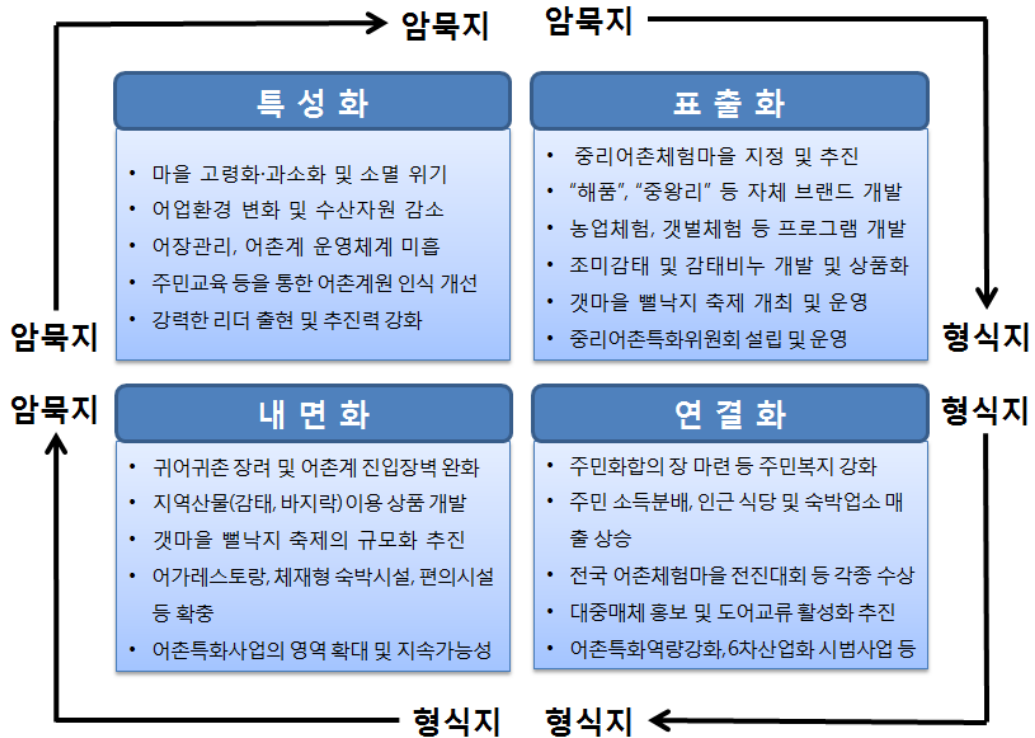
둘째,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단계에서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촌 체험마을이 지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이 창출되었다. 중리어촌체험마을은 2013년에

지정되었고, 2014년에 개장하였다. 바지락 캐기, 좌대낚시 등의 어촌체험과 감자캐기 등의 농어촌 복합체험을 통하여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해품”, “중왕리”를 상표 개발·등록하고 상품가치를 높였으며, 조미감태, 감태비누 등을 개발·판매하여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조미감태는 아직까지 태안에 위치한 업체에 위탁가공하고 있으나, 2015년 출시이후 꾸준히 매출 및 판매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감태비누, 감태한과 등 감태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갯마을 뿔낙지 축제를 개최하여 맨손 낙지잡기, 먹물 팩 해보기, 낙지 먹물 그리기, 낙지요리 무료시식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중리마을의 매력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역량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어촌특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형식지지만 존재하는 연결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성과가 홍보되어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의 지원사업을 투자받았다. 어촌체험마을의 성공과 함께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어업인의 날에는 국무총리 표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으로 충청남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마을이 되었다. 이러한 수상경력도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계보고와 투명한 결산관리를 통하여 주민 모두 납득 가능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마을 전체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졌다. 또 체험마을 운영과 축제 개최를 통하여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도 매출이 각 30%, 10%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마을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절별로 주민 화합의 장,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고, 함께 잘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동기부여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넷째,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구상이 전개되었다. 먼저 귀어·귀촌 및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하여 외지인에 개방적인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OEM을 통하여 생산되는 조미감태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마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지락을 활용하여 이유식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성황리에 매년 개최되는 갯마을 뿔낙지 축제를 규모화시켜 지역브랜드 축제로 발전시키고, 어가레스토랑, 체류형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에게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촌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어촌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중리만의 특화된 마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림 3-3] 중리마을의 지식변환 모드

### (3) 중리마을의 어촌산업 발전방안

앞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서산 중리마을의 어촌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중리마을은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하여 마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마을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사회에서 발생한 부정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마을리더의 설득과 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전환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리더가 부재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추진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리더 역량에 대한 의존단계를 넘어,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의 공감대를 인식하고 대표 조직(기구)을 설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식변환모드 중 내면화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촌체험마을 운영, 마을축제 개최, 마을 특산물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어촌체험마을은 계절별 프로그램을 전문화·다양화하여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갯마을 빨낙지 축제는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켜야 한다. 조미감태, 감태비누 등 마을 특산물은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성을 확보하고, 감태 외 바지락, 낙지 등을 활용한 수산물공식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 새로운 어촌산업 영역의 발굴 및 개척을 통하여 마을발전 동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이미 중리마을은 “해품”, “중왕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나, 이것들의 대중적 인지도는 매우 낮다. 마을 브랜드는 상품 또는 재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리마을만의 고유성,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전통어업유산 등의 소프트웨어를 발굴·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역 자원(특산물, 관광명소 등)과 연계하여 장소마케팅의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소득분배 및 주민복지 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중리마을은 이미 주민들에게 공정한 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촌사업을 추진했던 많은 마을들이 주민 간 소득분배에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마을사업 전부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리마을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 및 결산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정한 소득분배 및 복지사업을 통하여 끊임 없는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2) 태안 대야도마을

### (1) 기본현황

대야도 마을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로서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야도 마을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5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75가구, 13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는 귀촌인도 48명 포함되어 있다.<sup>16)</sup> 총 75가구 중 어가는 34가구이고, 나머지는 일반 마을주민, 상인, 펜션업자 등이다(김종화, 2015). 대야도 마을은 자발적으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하여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받아들여 마을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 간의 상생,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어촌체험마을을 추진하면서 보편적인 농어촌체험 외에 천상병 시인 고택, 걸어 들어 갈 수 있는 토끼섬, 화가 및 전통목공예 체험의 화가마을, 천연 식물성 화장품 제조 등 이색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김종화, 2015). 2014년 자연생태 학습·체험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으로 반건조 우럭 생산, 어가레스토랑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야도 마을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는 약 4만 명이고, 이중 재방문율은 80~90%에 달한다(김종화, 2015). 2013년 어촌특화 역량 강화사업, 2014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 분야에서 국무총리 상, 2015년 자율관리공동체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였다.



대야도 주민의 재능 기부



대야도 가족 음악회



반건조 우럭

자료 : 대야도 마을 홍보자료

[그림 3-4] 대야도마을 관련 사진

16) 이외에 이주노동자 30명도 거주하고 있음

## (2) 지식변환모드에 따른 사례분석

대야도 마을은 마을내 초등학교 분교를 지키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마을의 대표사업 키워드는 어촌체험마을, 마을학교, 어촌 6차 산업화, 주민복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사업을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로 분석하면 다음 <그림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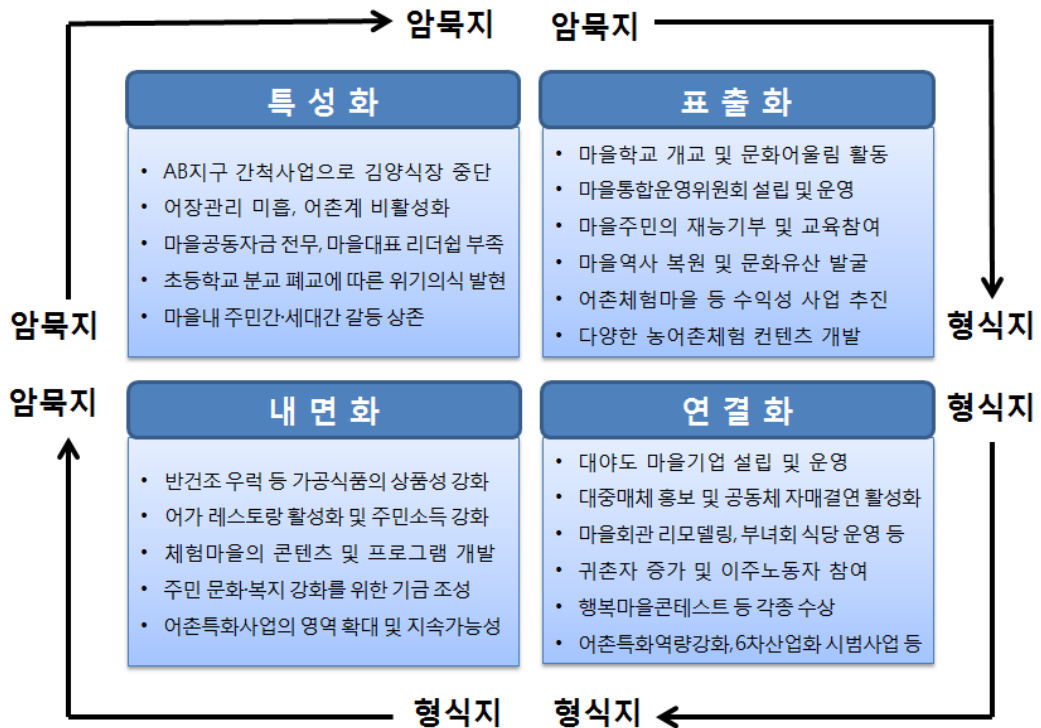
첫째, 암묵지로서만 존재하는 특성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김 양식지로서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나, AB지구 간척사업 이후 김양식장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마을어장 관리 미흡과 어촌계 비활성화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 마을발전에 사용될 공동자금이 없고, 리더십이 부재하였으며, 주민간·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어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마을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마을발전을 위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단계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마을에서 인수하고, 주민들을 위한 마을학교 개교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을학교 운영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교육 참여로 문화어울림 활동, 마을역사 복원 등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문화어울림 활동은 마을미관 정비 및 벽화그리기, 대야도 풍어제 개최, 밴드 동호회 운영, 가족음악회 개최 등이고, 마을역사 복원은 전통 낚시배 복원, 김 양식 전래지 복원, 천상병시인 고택 복원 등이었다. 이러한 마을 내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하면서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마을의 변화는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귀어·귀촌인에게도 역할을 부여하고, 마을 내 거주하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자발적으로 마을통합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마을사업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마을발전 의지를 담아, 첫 단추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함으로써 대야도 마을의 매력을 도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어촌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형식지로서만 존재하는 연결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에 따라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마을발전과 주민상생을 위한 효율적인 공동체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어촌마을로 자리매김하였고, 삼성

전기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활발한 도어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녀회 식당 운영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마을콘테스트,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등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에 선정되어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한편, 마을 내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마을사업에 동참시켜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넷째,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 단계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의 성공과 마을공동체 결속력의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강화하였다. 지역 특산물인 우럭을 가공하여 “반건조 우럭”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마을 내 작은 레스토랑, 카페를 운영하는 등 신규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반건조 우럭의 생산 시설 확충 및 판매망 확보, 마을 레스토랑 및 카페 활성화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체험마을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미 대야도 마을은 농어촌체험 외 목공예 체험, 식품성 체험, 시인고택·토끼섬 등 이색체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에게 보다 큰 재미와 학습효과를 선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기금은 노인공경 프로그램,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마을 음악회 등에 사용하여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어촌산업의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어촌특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화어촌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3-5] 대야도마을의 지식변환 모드

### (3) 대야도 마을의 어촌산업 발전방안

앞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태안 대야도 마을의 어촌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레스토랑 운영, 반건조 우력 생산·판매 등 주민소득사업이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대야도 마을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마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 특산물인 우력을 반건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레스토랑은 상시·연중 운영이 아닌 단체고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반건조 우력은 어촌체험마을을 방문객 또는 지인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소극적인 사업 운영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고, 사업의 연속성·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레스토랑 운영, 반건조

17) 최근에는 귀어·귀촌인에게 임대주어 우동집으로 운영되고 있음



우럭 생산·판매 등 소득사업이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변환모드 중 내면화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야도 마을은 어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가공업, 서비스업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왔다.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레스토랑 운영, 반건조 우럭 생산 외에 뚜렷한 추가적인 사업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사업의 다변화는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기반으로 파생될 수 있는 전·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지원금보다는 마을기금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대야도 마을은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이 투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촌산업화된 마을이다. 그러나 이미 대단위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제는 마을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후방 산업으로의 확장을 모색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과거보다 어촌산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어촌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야도는 우리나라 김양식 전래지로서 과거에는 양식어업 중심의 “달러박스” 라는 별칭이 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풍어문화제, 시와 음악회, 가족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어촌문화마을로 거듭 났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역사·인적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이를 콘텐츠화함으로써 대야도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어촌체험마을 또는 지역브랜드와 연계시켜 문화 중심의 어촌산업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또 이러한 문화자산을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마을브랜드로서 육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어촌산업화는 미래 대야도의 비전 또는 발전상이 될 수 있다.

### 3. 지식경영 관점의 사례비교

서산 중리와 태안 대야도 마을은 어촌의 특성을 살려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마을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르고, 추진주체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첫째, 특성화 단계이다. 공통점은 어촌 고령화·과소화에 의하여 주민들 사이의 위기감이 생겼고, 어업환경의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활동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야도 마을은 AB지구 간척사업 이후 김양식이 어렵게 되면서 마을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주민교육을 통하여 어업인 및 마을주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그 결과 마을 구성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차이점으로 중리마을은 어촌계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촌계가 마을발전을 주도하였고, 대야도 마을은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인수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리 주민조직이 주도하였다.

둘째, 표출화 단계이다. 공통점은 두 마을 모두 어촌산업을 위한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시키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래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체험마을사업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시작점은 다르지만, 브랜드, 상품, 콘텐츠 등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리더 및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컸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무장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반면 차이점으로 중리 마을은 어촌체험마을사업을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규모화·범위화를 모색했다는 것이고, 대야도 마을은 어촌체험마을과 마을학교를 접목시켜 역사와 문화의 콘텐츠를 강화해 왔다는 것이다.

셋째, 연결화 단계이다. 공통점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도어교류 등으로 중리와 대야도 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어촌특화, 어촌 6차산업화 등 어촌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또 두 마을 모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수산업·어촌개발과 관련된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두 마을은 소득사업을 통하여 증가된 소득을 마을주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경로잔치, 음악회, 주민화합잔치 등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차이점으로 중리마을은 매출액 증대를 통하여 주민에게 많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야도 마을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넷째, 내면화 단계이다. 공통점으로 두 마을은 모두 상품개발, 소득사업 확대를 통하여 주민 소득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중리는 감태와 바지락, 대야도는 우럭을 이용한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어촌특화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이러한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차이점으로 중리마을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하여 귀어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반면, 대야도 마을은 이미 기존 귀어귀촌인 수(46명)가 많아, 그것보다는 마을기금 확대를 통한 주민복지에 더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

[표 3-1] 지식경영 관점의 중리와 대야도 비교

단계	공통점	차이점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위기감</li> <li>■ 어업환경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li> <li>■ 주민교육에 따른 인식 개선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리는 어촌계 주도, 대야도는 행정리 주도</li> <li>■ 중리는 어촌계장의 강력한 리더십 및 주민 참여</li> <li>■ 대야도는 초등학교 분교 인수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li> </ul>
표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을 견인할 대표조직 설립</li> <li>■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사업 추진</li> <li>■ 다양한 주민소득사업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li> <li>■ 마을리더와 사무장의 강한 추진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리는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규모화 도모</li> <li>■ 대야도는 어촌체험마을과 마을학교를 접목하여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li> </ul>
연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홍보 및 도어교류 확대</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수주</li> <li>■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표창 수상</li> <li>■ 소득분배, 주민복지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리는 주민소득 증대 및 분배 강화</li> <li>■ 대야도는 마을기업 설립 등 소득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li> </ul>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개발, 소득사업 등 주민소득 강화</li> <li>■ 어촌특화사업 영역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리는 어촌계진입장벽 완화와 귀어귀촌</li> <li>■ 대야도는 마을기금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li> </ul>

## 제4장 충남 어촌산업의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충남의 어촌산업 현황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충남 어촌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어촌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충남도가 지역 어촌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지식경영 관점에서의 발전방안

#### 1) 지식변환 모드에 따른 발전방안

앞의 중리마을과 대야도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4-1> 과 같다. 첫째, 특성화 단계는 주민들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인식하고,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체감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교육을 통하여 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어촌산업을 견인할 추진주체(조직)와 강력한 리더가 출현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을 분위기를 바탕으로 어촌산업으로 접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표출화 단계에서 주민들이 체감한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까지 어촌산업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다”, “갯벌”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이용한 어촌관광이며, 마을발전을 원하는 마을은 대부분은 어촌체험마을 지정·운영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연안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마을어장(갯벌자원)이 보존되어야 하며,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또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마을 내 어촌산업의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본격적인 산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어촌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마을 레스토랑, 직거래판매장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야도의 마을기업과 같은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될 필요성도 있다. 한편, 표출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객관성 및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촌계, 대동계 등 어촌마을 내 여러 조직을 총괄하는 통합위원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연결화 단계에서는 표출화를 통하여 실행된 어촌산업이 보다 고도화되고, 대내·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1사1촌 등의 도어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정책 지원사업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내적으로는 효율적인 어촌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설립되고, 주민들을 위한 소득 분배 및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넷째, 내면화 단계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어촌산업 아이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색적인 체험·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그리고 마을의 어촌산업 영역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 및 연구가 추진된다. 또 어촌산업을 통한 수익이 마을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마을 내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한다.

[표 4-1] 지식경영 관점의 어촌산업 발전단계

단계	내 용
특성화	<b>어촌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을 객관적으로 인지 및 체감</li> <li>• 체계적·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한 마을발전의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li> <li>• 마을발전을 견인할 추진주체(조직) 및 강력한 리더 등장</li> <li>• 어촌산업으로 접목이 가능한 자원 발굴 및 개발 시도</li> </ul>
표출화	<b>마을 부존자원을 활용한 어촌산업화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마을통합위원회 설립·운영</li> <li>• 본격적인 어촌체험마을 지정·운영 추진</li> <li>•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마을어장 환경개선,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li> <li>• 마을자원을 이용한 수산물공식품 개발, 마을 레스토랑 및 직거래판매장 운영 등</li> </ul>
연결화	<b>어촌마을의 대내외 인지도 상승 및 주민복지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1사1촌 등 도어교류 활성화</li> <li>• 정부 및 지자체, 단체로부터 표창 등을 수상하여 대외 이미지 강화</li> <li>•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사업을 수집하여 어촌산업의 기반 조성</li> <li>• 마을기업 설립, 소득분배, 주민복지사업 등 사업혜택 공유</li> </ul>
내면화	<b>어촌산업의 신사업 개발 및 지속가능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새로운 소득사업 창출</li> <li>• 이색적인 체험·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어촌산업의 영역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li> <li>• 주민 문화·복지 강화 및 갈등 관리·조정</li> </ul>

## 2) 어촌산업 모델에 따른 지식변환 모드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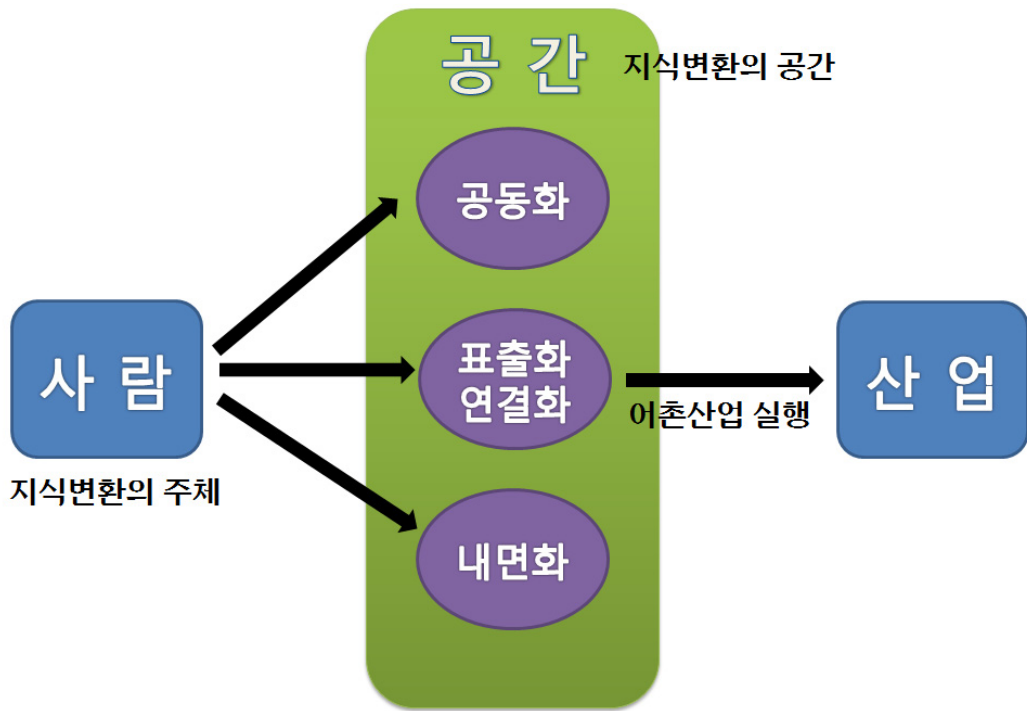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어촌산업의 모델을 공간, 산업,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노나카의 지식경영 이론의 4단계 지식변환 모드(특성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에 따라 어촌산업을 설명하였다. 어촌산업 모델의 구성요소에 따라 지식변환 모드의 단계를 접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촌산업 모델 중 공간은 지식변환 모드가 발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변환 모드의 각 단계는 어촌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다. 어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갖는 현안문제가 암묵지가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식변환 모드가 실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문제는 특성화 단계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어촌산업 모델 중 산업은 어촌공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묵지가 형식지로 전환되는 표출화 및 연결화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현실적인 산업화 모델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어촌산업의 기반이 마련된다. 또 내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촌산업의 내실화가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어촌산업 모델 중 사람은 지식변환 모드의 전 과정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성화 단계에서는 어촌의 현안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출화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연결화 단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내면화 단계에서는 새로운 신사업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어촌산업 모델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어촌공간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강한 리더쉽, 그리고 진취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어촌산업의 원동력이 된다. 또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회계관리, 공정한 소득분배와 주민복지가 해당마을의 어촌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어촌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주민이 어촌산업을 통하여 마을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촌산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마을리더를 어촌산업의 지도자로 육성하고, 그들에게 투명한 조직 및 회계 관리, 공정한 소득분배,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



[그림 4-1] 어촌산업 모델과 지역변환모드의 접목

## 2.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1) 정책방향

본 절에서는 충남도가 어촌산업 추진에 있어 설정해야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산업의 비전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자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 충남 어촌을 육성해야 한다<표 4-2>. 어촌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체는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기본 명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 어촌을 지향해야 한다. 또 어촌산업의 정책적 목표를 6차산업화의 정의와 부합하게 어촌의 가치를 제고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사업만을 지향하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의 인구·인력,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융·복합 산업으로 어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어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촌산업의 메카니즘이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 어촌의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어촌, 주민이 행복한 어촌이 실현될 수 있다.

[표 4-2]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

구분	정책방향	내 용
비 전	사람이 모이고 주민이 행복한 충남 어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언제나 활력인 넘치는 충남 어촌 지향</li> <li>• 어촌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체는 어촌주민</li> <li>•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어촌 지향</li> <li>• 어촌산업의 주체로서 어촌주민, 어촌산업의 주요 공간으로서 어촌의 이미지 강조</li> </ul>
목 표	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산업 육성을 통하여 어촌의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력 증진</li> <li>• 단순히 경제사업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의 인구·인력,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융·복합산업으로의 어촌산업 추구</li> <li>• 어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 실현</li> <li>• 어촌산업으로 어촌의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가 이루어 지면 지역 활력으로 사람이 모이는 어촌 실현 가능</li> </ul>

## 2) 추진 전략

충남 어촌산업 모델에 따라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각 전략별로 살펴 보면 공간은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 산업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사람은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어촌산업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하여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 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 은 어촌산업의 중심공간으로서 충남 연안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어촌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융복합산업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어촌체험마을,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어촌 6차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및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 간 융복합화를 실현해야 한다. ②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민속마을, 귀어학교 등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충남



어촌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촌마을 인프라 구축 및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사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보다는 지역여건 및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지역성이 강조되고 계획성이 담보된 공모가 되어야 한다. ③ 내수면 어업마을, 도서어촌의 활성화를 통한 충남 내륙연안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연안의 어촌마을을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계, 도서어촌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충남 어촌산업의 공간적 영역을 확대하고, 道내 각 시·군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계 및 마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서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서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단, 도서의 경우,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거나 갖추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④ 어촌의 안전시설 및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바다와 접해 있어 항상 위험이 있는 어촌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어촌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 복지, 교육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육성해야 한다. ① 충남 수산업의 중요한 자원인 천일염, 자염, 마른감·조미감, 젓갈류 등과 같은 수산식품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생물인 수산물뿐만 아니라 건조, 조미 등으로 가공된 수산식품에 대한 산업적 육성을 통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질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②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등과 같이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보령과 태안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집적화·규모화가 필요하고, 관련된 전후방산업이 밀집되는 것이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등의 2차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 등 3차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내수와 수출시장을 고려한 지역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③ 지역 수산식품의 산지기반을 조성하고, 유통개선, 소비촉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수산식품은 원료조달에서 가공·제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일련의 가치사슬을 갖고 있으며, 이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가 배가된다. 따라서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원료조달, 가공·제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사슬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④ 지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충남은 마른감, 조미김, 젓갈류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김 중심의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 해삼, 전복, 우럭, 감태 등으로 확대하고,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셋째, 어촌주민이 행복한 어촌마을을 지향해야 한다. ①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귀어귀촌을 통하여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에 따라 어촌마을이 소멸된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 등을 통한 인구유입과,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sup>18)</sup> 이를 위하여 귀어귀촌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빈집 리모델링, 멘토-멘티제도 운영, 어촌특화분야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복지·교육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수협을 실천해야 한다. 수산업의 근본 조직은 어촌계이고, 어촌계를 대표하는 것이 수협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수협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수협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삶 및 어촌사회에게 기여하는 조직으로 혁신해야 한다.<sup>19)</sup> 이를 위해서는 지역수협의 지역 중심의 경제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어업인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충남형 어촌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등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농촌 중심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어촌마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식품부와 해수부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어촌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촌특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만의 수산업 여건, 어촌마을 특성을 고려한 어촌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관주도가 아닌 마을발전을 원하는 어촌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생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18) 현재 충남도에서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하고 있음

19) 충남도에서는 지역 수협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④ 어촌의 청년창업 육성, 어촌문화축제를 통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충남 어촌을 실현해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 청년들의 유입시켜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수산업·어촌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어촌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촌 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촌의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충남 어촌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① 어업인의 일터 및 쉼터 조성으로 어업활동의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업활동은 바다와 직면하여 작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항상 열악한 어로환경에서 바닷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의 일터에 화장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그들의 작업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② 어촌산업의 마을기업 육성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지역 어촌 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산업의 전반에 걸쳐 민·관을 연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촌 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어촌산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어촌마을은 스스로 개발한 체험관광 콘텐츠, 지역특산물 상품 등을 아이টে으로 마을기업을 창업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주민, 귀촌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을 통하여 마을주민 모두 잘 사는 어촌마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전통 어촌마을의 역사·문화, 중요어업유산 기록·보전으로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 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전통어촌문화가 소멸되고 있다. 충남의 전통어촌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 후세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 충남 어촌사회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전통어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하여 우수한 충남의 어업·어촌 자산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④ 환황해권 수산산업 교류를 통한 동북아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수산업의 특성 상, 서해안을 중국 산둥성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중국 산둥성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표 4-3]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전략

추진전략	세 부 내 용
즐거움 어촌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융·복합산업 공간 조성</li> <li>•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국가사업 유치를 통한 어촌발전 기반 마련</li> <li>• 내수면 어업마을, 도서어촌의 활성화를 통한 충남 내륙연안의 균형발전</li> <li>• 어촌의 안전시설 및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시설 확충</li> </ul>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 자염, 마른감·조미김, 젓갈류 등과 같은 수산식품의 전략적 육성</li> <li>•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li> <li>• 지역 수산식품의 산지기반 조성, 유통개선, 소비촉진 등 가치사슬 구축</li> <li>• 지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li> </ul>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귀어귀촌을 통하여 어촌 소멸위기에 선제적 대응</li> <li>• 수협·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수협 실현</li> <li>•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통한 충남형 어촌마을만들기 추진</li> <li>• 청년 어촌창업, 어촌문화축제를 통하여 젊고 활력넘치는 충남 어촌 실현</li> </ul>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의 일터 및 쉼터 조성으로 어업활동 여건 및 환경 개선</li> <li>• 어촌산업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마을기업 육성</li> <li>• 전통 어촌마을의 역사·문화, 중요어업유산 기록·보전으로 가치 계승</li> <li>• 환황해권 수산산업 교류를 통한 동북아 상생·발전 도모</li> </ul>

이상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비전도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4-2>와 같다. 4개의 추진전략이 “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지시하고, 목표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 주민이 행복한 공간 충남 어촌”을 지지하고 있다.



[그림 4-2] 충남 어촌산업의 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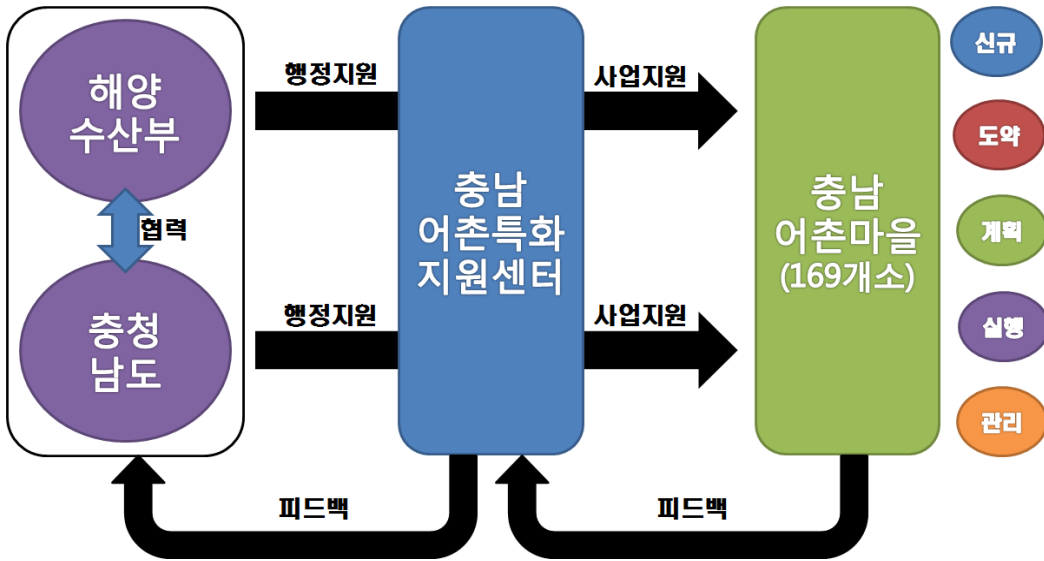
### 3. 추진체계 및 로드맵

#### 1) 추진 체계

어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을 연결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어촌산업은 근본적으로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 마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을주민이 어촌산업을 통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고 사업화하면서 어촌산업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간다. 또 그 후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받아 정부-지자체-어촌마을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어촌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좀 더

사업을 부드럽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충남도에서는 2017년에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수부와 충남도, 어촌마을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충남도의 어촌산업 육성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3>와 같다.



[그림 4-3] 충남 어촌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부와 충남도는 행정기관으로서 충남 어촌마을의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행정기관과 어촌마을 사이에서 민과 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은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마을이 어촌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어촌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하는 성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지원센터에 환류하면,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현장컨설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경영, 회계, 마케팅, 상품개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산업 추진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현장 애로사항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정부 및 충남도의 어촌산업 정책이 보다 현장에 밀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로드맵

앞서 언급했듯이 어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주민의 참여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마을주민이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 발전이 가능하고, 주민소득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촌산업의 로드맵은 주민을 중심으로 다음 <그림 4-4>와 같이 신규, 도약, 계획, 실행, 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규단계는 주민들이 어촌의 고령화·과소화, 수산자원 감소, 해양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마을발전 및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또 마을리더가 어촌산업을 통하여 마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의지가 발현되는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 마을주민이 어촌산업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이 출발의 시작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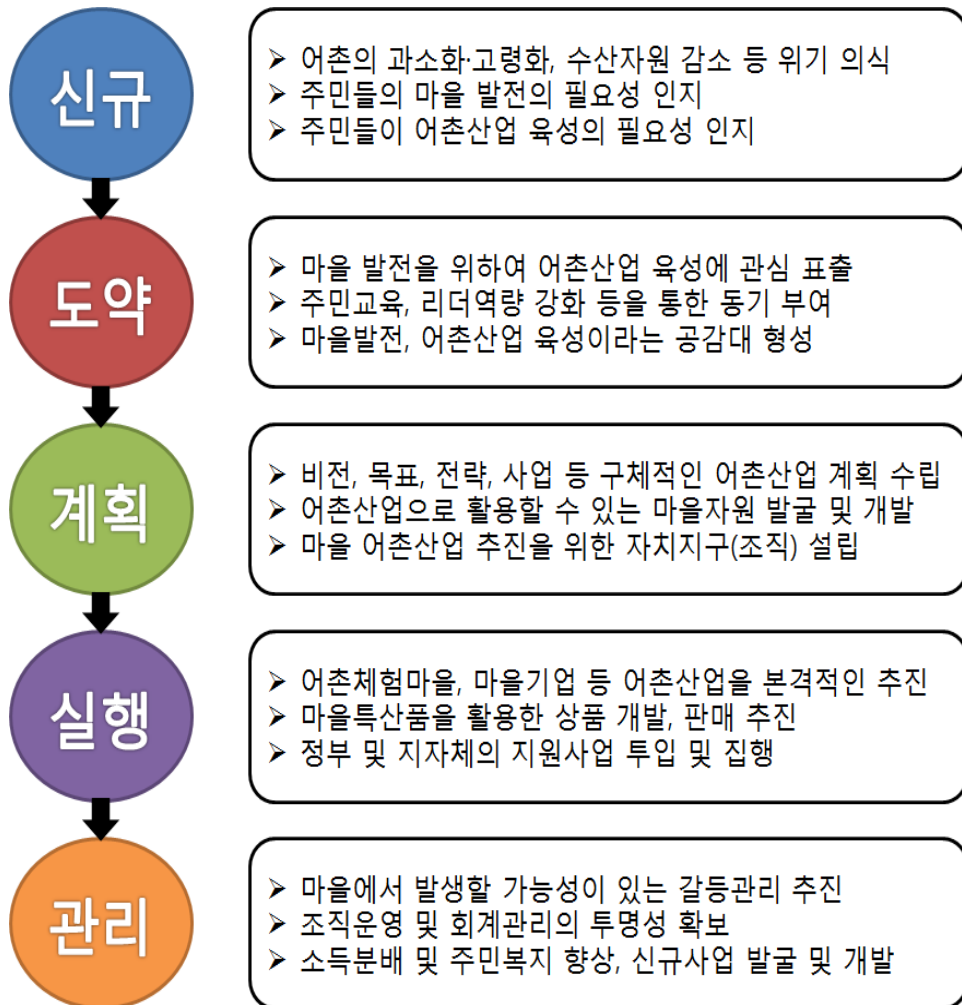
둘째, 도약단계는 주민들이 마을발전을 위하여 어촌산업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고, 주민교육 및 리더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단계이다. 또 마을발전, 어촌산업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된다.

셋째, 계획단계는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어촌산업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어촌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마을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마을 내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자치기구(조직)을 설립하게 된다. 이 단계는 어촌산업의 본격적인 실행 전에 마을 구성원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어촌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다.

넷째, 실행단계는 앞서 수립했던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촌산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어촌체험마을, 마을기업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받으면 정부사업이 투입되어 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계는 앞서 실행됐던 어촌산업의 부작용 및 문제점이 발현되고, 이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마을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 및 회계관리로 마을주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소득분배 및 주민복지 향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상품 및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성장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 정리한 5단계의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다. 어촌산업 모델의 3요소 중 사람은 어촌산업의 시작과 끝이자 계획과 실행, 관리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은 사람(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촌마을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어촌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4-4]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 로드맵



## 제5장 결론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 업무조정으로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전담하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연안 시·도별로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수산업·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화 속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어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어촌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6차산업화에 대한 국가적·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이를 수산업 또는 어촌과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산업이 6차산업화와 어촌특화의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최근 수립된 해수부와 충남도의 계획을 분석하여 어촌산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 충남의 대표적인 어촌산업 선진지인 서산 중리마을과 태안 대야도마을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식경영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4가지의 지식변환 모드(특성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상에서 어촌산업의 발전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 어촌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어촌산업 모델(공간, 산업, 사람)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으로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융·복합산업 공간 조성, 국가사업 유치를 통한 어촌발전 기반 마련, 충남 내륙연안의 균형발전 추구, 어촌의 안전시설 및 문화, 복지, 교육 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은 수산식품의 전략적 육성, 수산식품산업관련 국가사업 유치, 지역 수산식품의 가치사슬 구축, 지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은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수협 실현,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실현, 젊고 활력 넘치는 충남 어촌 실현을 제시하였다.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는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 및 환경 개선, 어촌산업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마을기업 육성, 전통 어촌마을의 역사·문화 가치 계승, 어촌 선도 지역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 官(행정기관)과 民(어촌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리하고, 충남 어촌산업의 추진 로드맵을 신규, 도약, 계획, 실행, 관리 5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촌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식경영의 4가지 지식변화 모드에 따라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충남 어촌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정책방향으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중간지원조직에게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충남 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등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부록에서 제시하지만, 보다 면밀한 세부사업 도출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김상겸·박진근·정창영(1977), 전통적 어촌지역사회의 경제행태 분석, 산업과경영 4(1),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pp341-351.
- 김수관·정병근·김민영(2008), 어촌 어메니티와 어촌경제 활성화 : 전북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39(2), 한국수산경영학회, pp41-60.
- 김종화·조은정(2014),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충남 태안군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한국농촌계획학회, pp45-53.
- 김종화(2015),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사례연구, 전략연구 2015-06, 충남연구원.
- 김종화(2016), 충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발전방안 연구, 현안과제, 충남연구원.
- 김정태(2012), 농어촌 지역개발산업의 어촌지역 주민협력실태 :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의 만족과 참여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한국거버넌스학회, pp1-22.
- 김준(2008), 문화론적 어촌 마을가꾸기, 그 실험과 과제, 인문논총 22,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73-103.
- 박상우·이승우(201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수시연구 2013-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경언(2003),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관광어촌의 유형화 : 제주도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한국지역지리학회, pp349-372.
- 안영길·김나영·김용근(2008), 커뮤니티 공간 개념 도입을 통한 관광어촌 활성화 계획 : 변산 대항리를 사례로, 농촌관광연구 16(2), pp142-166.
- 옥영수(2008), 어촌계의 소득 격차와 변화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39(3), 한국수산경영학회, pp25-47.
- 이근변(1990), 한일어촌의 계층구조와 사회이동의 비교연구, 농촌사회연구 1, 전북대학교 농촌사회발전연구소, pp1-32.
- 임관혁(2014), 어촌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도서학회, pp145-160.
- 임관혁·구완희·이승철(2014), 어촌지역 6차산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6권제4호, 한국도서학회, pp87-104.

임관혁·유영심(2015), 어촌마을의 내발적 발전모델 제시를 위한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 한국도서연구 27(4), 한국도서학회, pp15-28.

정근식·김준(1998), 어촌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완도 정도리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9,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47-84.

정의선·이영진·이광표(2014),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어촌관광사업의 영향인식과 지지도 관계분석 : 논골담길 공공미술과 어촌체험마을 비교, 관광학연구 28(9), 한국관광학회, pp99-122.

최성애·박상우·김봉태(2009),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 정책연구 2009-11(기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영·이승우(2000),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연구 2000-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부처합동(2000), 제1차 해양수산발전계획.

관계부처합동(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계획.

수협중앙회(2017), 2016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및 분류평정.

충청남도(2014),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충청남도(2015), 한중 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어업·어촌 중장기 발전전략.

충청남도(2016), 2016년 충청남도 수산현황.

충청남도(2016),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수산회(2017.1), 「자율관리어업&수산소식 제10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

해양수산부(2008), 제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4),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15),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정계획).

해양수산부(2016),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 전국 갯벌 면적 조사, 각년도.

자율관리어업 HP 「<http://www.jayul.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농림어업조사, e-지방지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귀농어·귀촌인 통계.

해양수산부 HP 「[www.mof.go.kr](http://www.mof.go.kr)」.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04.14.일자.

해양수산부, 12개 어촌특화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보도자료, 2015.04.01일자.

今村奈良臣(1998)、新たな価値を呼ぶ、農業の6次産業化、21世紀村づくり塾.

小林茂典(2012)、6次産業化の展開方向と課題、農林水産政策研究所.

堀田和彦(2012)、農商工間の共創的連携とナレッジマネジメント, 農林統計出版

野中郁次郎·竹内強高(1996)、知識創造企業, 東洋經濟新報社.

(부록)

## 충남 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안)

### 1. 기본방향

#### ■ 충남 어촌의 공간적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어촌산업 육성

- 도서(섬), 갯벌, 사구 등 충남이 보유한 다양한 해양환경자원 활용
- 충남 청정해역을 유지·보전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 어촌의 공간적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어촌공간 조성
- 어촌의 전통 문화·예술을 포괄하여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어항 및 도서에 정주·경제·사회적 기능을 더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육성

#### ■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어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태동하고 육성될 수 있는 식품산업기반 확대
- 지역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산업 및 브랜드 육성
- 지역 수산물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통구조 및 진취적인 수출정책 추진
- 6차산업화를 통하여 수산업과 가공, 관광·서비스, 유통 산업과의 융복합화 추진
- 학교급식, 직매장 등을 활용하여 지역 수산물 로컬푸드 확산 및 소비 촉진

#### ■ 사람이 찾아오는 어촌마을 실현으로 지역 어촌사회 활력 증진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양식기술 전수 등을 통하여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
- 어촌체험마을, 낚시업 등 2차, 3차 산업에서의 귀촌인의 역량 발휘 유도

- 어촌주민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하여 어촌마을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모색
- 도어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가치 확산
- 어업인 및 어촌주민 대상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람중심의 어촌행정 실현

## 2. 비전 및 목표

### ■ 비 전 : 사람이 모이는 공간, 주민이 행복한 공간 “충남 어촌”

-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언제나 활력인 넘치는 충남 어촌 지향
- 어촌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체는 어촌주민
-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주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어촌 지향
- 어촌산업의 주체로서 어촌주민과 어촌산업의 공간으로서의 어촌의 이미지 강조

### ■ 목 표 : 어촌의 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

- 어촌산업 육성을 통하여 어촌의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활력 증진
- 단순히 경제사업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의 인구·인력,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고려하여 융·복합산업으로의 어촌산업 추구
- 어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 실현
- 어촌산업으로 어촌의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 지역 활력으로 사람이 모이는 어촌 실현 가능

비전

사람이 모이는 공간, 주민이 행복한 공간 “충남 어촌”

목표

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

추진전략

즐거움 어촌공간 조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

세부사업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어촌체험마을  
비즈니스 기반 구축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

어촌·도새  
안전지원 사업

특색있는  
도새어촌 육성사업

전일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식품의  
산지기반 구축

수산물식품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

수산물식품 수출 활성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수업의 지역역인  
역량강화 지원

귀어귀촌 정착 및  
창업 지원

충남형  
어촌마을만들기 추진

청년 어촌창업  
아카데미 운영

충남 어촌마을  
문화축제 개최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어촌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전통 어촌마을  
아카이브 사업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

환경예견 수산산업  
상생·발전 교류

[그림 부록-1] 충청남도 어촌산업의 비전 및 세부사업



### 3. 추진전략

#### ■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

- 어촌 6차산업화,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실현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치를 통하여 충남 어촌의 발전기반 조성
- 내수면 어업마을, 도서어촌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남도 국토의 균형적 발전
- 안전한 어촌·도서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 천일염, 김산업 등 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전략적 육성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지역 수산산업의 기반 강화
- 지역 수산식품의 산지기반 구축, 유통개선, 소비촉진으로 효율적 밸류체인 구축
- 지역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역량 집중

#### ■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귀어귀촌을 통하여 어촌소멸의 선제적 대응
- 수협이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수협 실현
- 충남형 어촌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실현
- 어촌의 청년창업 육성, 어촌문화축제를 통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충남 어촌 실현

#### ■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

- 어업인의 일터 및 쉼터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어촌산업의 기반 조성
- 전통 어촌마을의 역사·문화, 중요어업유산 기록·보전으로 가치 계승
- 한황해권 수산산업 교류를 통한 동북아 상생·발전 도모

## 4. 세부사업

### 1) 즐거운 어촌공간 조성

####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 어촌의 유·무형 자원 기반으로 어촌 주민주도의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의 융합·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
-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어촌체험마을 비즈니스 기반 구축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기존 민물고기생태체험과 지원사업 대상자의 포기에 의하여 해양수산업시행지침(어촌지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따라 어촌형 관광·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으로 변경 추진

####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개발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분리 결정 (기재부, 해수부, 농식품부)
- 3농혁신과 연계하여 수산식품 로컬푸드 매장, 독살복원, 바다체험 힐링공간 등 조성으로 어촌 인프라 확충

## ■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

- 지역 특산 내수면 품종 보급 및 다품종 생산체제 지원을 통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내·해수면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유도
- 외래어종 퇴치를 위하여 천적어종방류 또는 수매사업을 병행하여 고유의 토종어류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복원
- 금강(지천)의 수서환경 개선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치어를 방류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내수면 낚시터 시설지원 등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낚시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 어촌·도서 안전지원 사업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최근 낚시인구의 증가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도 차원의 선제적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 사전 안전점검 이행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도시와 어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으로 어촌주민의 소득 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 도모

## ■ 특색있는 도서어촌 육성사업

- 충남도에 위치한 유·무인도서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여 도서어촌별 특색에 맞는 개발 추진 필요
- 일본 나오히마, 오지카, 우리나라의 연흥도와 같이 도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풍경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서어촌으로 육성
- 도서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귀어귀촌사업 등과 연계 추진 검토

## 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 ■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사업

- 천일염의 고급화 및 생산단계에서 위생적인 관리로 상품규격화 및 현대화 기여
- 낙후된 염전시설의 현대화로 소금산업화 추진 기초마련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 공급
- 낙후된 염전시설의 현대화로 소금산업화 추진 기초를 마련하고, 천일염 생산의 자동화로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 소금 이송 및 포장공정의 자동화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낙후된 염전시설의 현대화로 소금산업화 기반 마련

### ■ 김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국제 식품안전 기준에 적합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수출확대 등 김 산업 활성화 도모
- 김 산업을 수산분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충남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촉진

##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 수산물 가공 및 수산식품 개발지원 등 6차 산업화 기반 확충
- 수산물 판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 소득원 다양화
- 보령시와 태안군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성공적 준공 및 운영 촉진

## ■ 수산식품 산지기반 구축

- 산지 노후 수산물 보관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및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 우수한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 우수 업체 및 기능보유자를 발굴 지정·육성
- 산지 수산물 품질향상 및 신선한 공급기반 구축으로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지역 특산 수산물인 감태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가공·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내수 및 수출용 수산식품의 이동·운송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고 상품의 이미지 효과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

## ■ 수산식품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

- 산지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강화하여 신선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판로확대와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물 수집·보관·판매 등 복합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지 유통 기반 강화 및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지 수산물 직거래 등 직매장 시설기반 확충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수산물 공동출하 등 소비지에 시장 개척을 위한 수산물 소비지 물류센터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강화로 소비촉진 도모

### ■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 수산업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FTA 체결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수산물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수출업체 해외식품 전문전시회 등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획득 및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에 지속적인 참가 및 출품 지원
- 박람회 참여업체 모집 및 해외바이어 등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3) 행복한 어촌주민 지향

### ■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시범사업

- 어촌의 어업인력난 지속 및 어촌계 가입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어촌계 가입에 까다로운 가입요건 등 현실적 진입장벽 존재
-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업인력이 부족하고 향후 개선여지도 비관적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유입인력은 적음
- 도시민 등 신규인력의 어촌진입 완화를 통한 어촌사회발전 유도
- 사람중심의 어촌공동체 활성화로 어촌의 경제작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 도모
- 어촌계 및 어업인 대상으로 사업추진 안내 및 교육, 홍보 강화
- 어촌계 현황조사 및 진입장벽완화 사업 참여 어촌계 발굴로 진입장벽완화 사업 추진

## ■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

- 금융중심의 수협경영에서 탈피, 어촌에 대한 사업 위주의 단편적 행정지원에서 어업인 자주 협동조직인 지역 수협의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어촌발전을 위한 어업인 자발적 참여 유도
- 예비사업대상 수협 및 시군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사업 실행 구체화 방안 수립
- 수협의 역량강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 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 귀어귀촌 정착 및 창업 지원

- 귀어귀촌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활력 증진 및 인구감소 대응
- 도시민의 귀어귀촌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양적·질적 인프라 구축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 충청남도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지역 및 현실에 맞는 귀어귀촌 지원방안 수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추진이 미흡한 귀어학교,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적극 추진

## ■ 충남형 어촌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 어촌주민의 마을발전에 인식 개선 및 지역의 소득창출 방안 모색
- 국가 및 충남도 어촌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참여 유도

- 주민주도의 내생적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유도
- 2017년부터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역량강화와 마을발전계획 수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 ■ 청년 어촌창업 아카데미 운영

- 지역 어촌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어촌의 인구 유입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어촌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 마련
- 3D로 인식되는 어업활동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의 가치 발견으로 충남 어촌의 활력 증진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어촌창업 아카데미를 단계별 · 순차적으로 운영

## ■ 충남 어촌마을 문화축제 개최

- 충남 어촌에 대한 홍보 및 프로모션이 부족하여 타 지자체에 비하여 충남 어촌에 대한 인지도 미흡
- 일부 어촌체험마을로 유명한 어촌계를 제외하고는 어촌관광분야에서의 어업인의 관심 부족
- 어촌관광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충남 어촌의 대대적 홍보를 위한 어촌문화축제 필요
- 어촌을 테마로 하는 연극, 밴드 · 댄스 공연 등을 개최하여 볼거리 제공
- 수산물 로컬푸드 장터를 개최하여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및 관심 유도
- 지역 주민들의 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하여 참가자 관심 유도
- 어촌관련 사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축제 유도



#### 4) 선도적인 지역역량 강화

##### ■ 어업인 일터 및 쉼터 조성사업

- 영세 어촌계에 수산물 공동작업장 및 휴게시설 건립지원으로 어업공동체 단합과 삶의 질 향상
- 어업인 회관 신축으로 어촌환경 개선 및 복지공간 확충, 주민 사기진작 도모
- 어업생산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로 친환경 웰빙 수산물 이미지 제고
- 갯벌 작업(바지락 채취 등) 어업인 생리욕구해결로 기본적 인권 보장

##### ■ 어촌특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어촌특화에 필요한 창업·경영컨설팅, 연구개발 및 판매·유통·홍보 등 지원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추진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어촌마을의 특화발전 기여
- 지역 수산식품 판촉, 주민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역량 강화

##### ■ 어촌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건강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 추진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어촌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개념 도입 필요
-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응·지원하기 위하여 충남도 차원의 지원(아이디어 발굴, 주민교육 등) 필요
- 충남도 차원에서 해양수산분야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필요

## ■ 전통 어촌마을 아카이브 사업

- 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어촌의 역사·문화를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정책사업 추진 필요
- 충남의 어촌마을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록함으로써 향후 어촌체험·관광 콘텐츠 자원으로 개발 가능
-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사업 추진

## ■ FAO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

- 2002년 FAO(세계식량기구)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도입
-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NIAHS :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가 도입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복원에 따라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분리
-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 하동녹차, 충남 금산인산이 추진 중
- 현재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 '15.12), 보성 뽕배어업( '15.12), 남해 죽방렴( '15.12), 신안 갯벌 천일염업( '16.10)
- 충남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업기술을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추진
- 효자도 낭장망, 태도 독살 등 전통어업 유산 발굴 및 유산적 가치 조사 추진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시, 어업유산 지정지구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
- 충남도내에서 가능성 있는 어업유산이 발굴될 시에는 해당 시·군이 국가어업유산 및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 수행 유도

## ■ 환황해권 수산산업 상생·발전 교류

- 환황해권 수산산업의 공동발전 및 상생을 위한 교류 사업 추진으로 환황해권 거점 수산지역으로 면모 강화
- 현재 중국 산둥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전방위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도모
- 연 1회 중국 산둥성과 정기적인 수산업관련 포럼,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해삼양식, 수산업 무역 등과 관련된 양국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협의체계 구축
- 충남도와 중국 산둥성과 상호 방문 및 양식기술, 어촌 6차산업화 등 인적 교류
- 청년창업 어업인 등 미래세대의 상호방문을 통한 양국의 선진 어업기술 습득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7-28 · 충남 어촌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글쓴이·김종화

발행자강현수 / 발행처·충남연구원

인쇄·2017년 12월 31일 / 발행·2017년 12월 31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041-840-1128(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29

ISBN·978-89-6124-424-4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